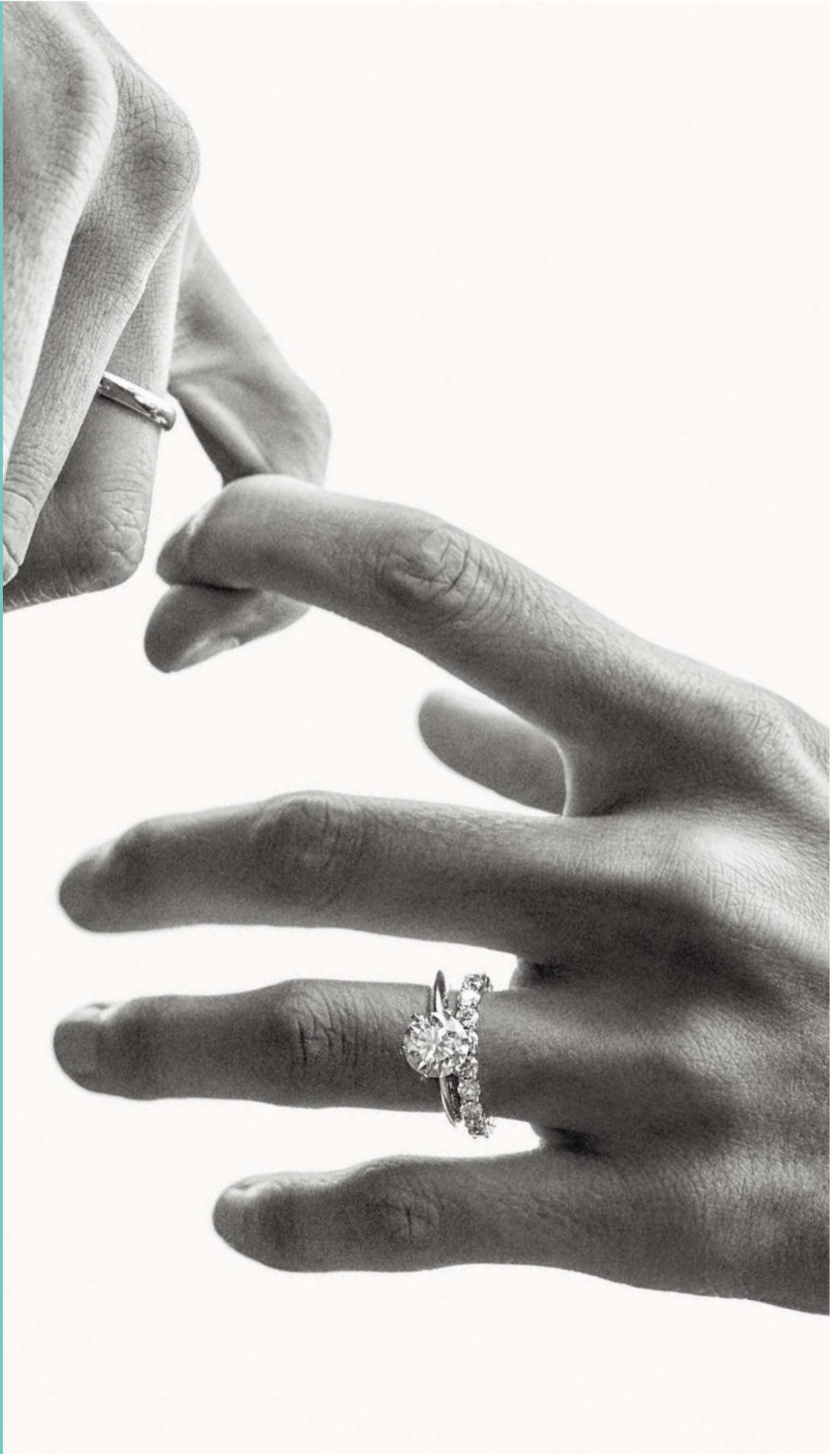


# Style 1 조선일보

FEBRUARY  
2018 vol.168

TIFFANY & Co.

Believe In Love



1968년에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알함브라 컬렉션은 진귀한 행운을 상징합니다.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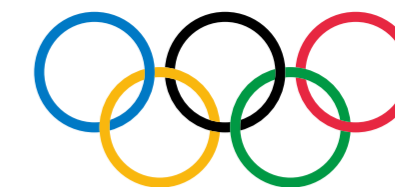
BY APPOINTMENT TO  
HER MAJESTY THE QUEEN ELIZABETH II  
WEATHERPROOFERS  
BURBERRY LIMITED LONDON



BY APPOINTMENT TO  
HRH THE PRINCE OF WALES  
OUTITTERS  
BURBERRY LIMITED LONDON

**BURBERRY**





OFFICIAL TIMEKEEPER

## RECORDING OLYMPIC DREAMS

Since 1932, OMEGA has known that the Olympic Games is a stage for dedicated athletes to reach their dreams. That's why we love our role as Official Timekeeper and why we're so passionate about providing trusted precision in every single event.



SEAMASTER AQUA TERRA  
PYEONGCHANG 2018 EDITION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 신세계 본점 02 310 1270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1910 •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현대 판교점 031 5170 1111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신세계 대구점 053 661 1811





16



40

**Style** 조선일보

1백80여 년간 전 세계 라브 스토리와 함께해온 티파니가 사랑에 빠진 실제 커플들의 모습을 담은 'Believe In Love'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랑이라는 자국이 찬란하고 기쁜 순간의 감정의 고개를 통해 표출된 커플의 손동작을 클로즈업한 인상적인 캠페인이다. 사진 속 커플의 손에 킨 티파니 세팅과 임브레이스 밴드 링, 그리고 티파니 클래식 웨딩 밴드 링이 사랑의 증표로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다. 문의 02-547-9488



12



22

- 16 **FACES OF CÔTE D'AZUR**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기 많은 관광지인 게 놀랄지 않을 만큼 코르디쥐르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물론 출중하다. 도시와 마을마다 전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올드 & 뉴가 적절히 조화된 팔색조 매력을 들여다봤다.
- 18 **FAIRY SHOES**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날, 드레스 끝자락 아래 모습을 드러내는 웨딩 슈즈는 화려함수록 진가를 발휘할 것.
- 20 **STAND BY ME** 풍격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세련되고 트렌드한 스타일까지, 예비 신부를 위한 웨딩 슈즈 선택.
- 22 **BRIGHT MOMENTS** 섬세한 웨딩드레스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드러난다. 꿈같이 아름다운 웨딩 주얼리 컬렉션.
- 29 **DEAR MY LOVE** 하이 주얼리 웨딩 링부터 워치까지, 커플의 취향을 고려해 엄선한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34 **SWEET SPRING** 시대를 초월하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배우 김희선과 팬디의 만남.
- 40 **A CREATIVE JOURNEY** 2017년 6월, 서울 D 뮤지엄에서 성황리에 마친 <마드모아젤 프리버> 전시가 2월 10일까지 홍콩에서 흥미로운 여정을 이어간다. 사뭇이 창조한 세계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전시는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 42 **BELIEVE IN LOVE** 티파니가 사랑에 빠진 실제 커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 #Believe In Love를 선보인다.
- 43 **BRIDAL BEAUTY** 여자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꿈의 화장품들 담은, 시어머니와 예비 신부를 위한 예단 뷰티 컬렉션.
- 44 **ETERNAL PROMISE** 인생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를 예비부부를 위해 고른 오메가의 워치와 파인 주얼리 컬렉션.
- 45 **MIRACLE LIGHT** 타사키는 동아시아 유일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 자격 '사이트홀더'를 갖추고 있으며, '기적의 빛'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원석을 컨트롤한다.
- 46 **BLUE THERAPY** 1백 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은 세 지역을 블루 존으로 선정, 그곳에서 채취한 활성 성분을 꼭 채워 담은 사뭇의 블루 세럼.
- 47 **ONE DROP AT NIGHT** 라프레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피부에 세심하게 작용하는 신중함 스킨케어 신제품 라프레리 플라타늄 레어 셀룰라이트 엘릭시어는 밤을 위한 특별하고 유니크한 진중 케어 제품이다.
- 48 **PRECIOUS PRESENT** 예단은 정중한 첫인사인 만큼 정성스레 포장해 예를 대해야 한다. 예단 패키지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
- 49 **SHINE YOUR DAY** 반짝임의 대명사 스와로브스키가 브랜드 뮤즈 박산혜를 내세운 새로운 워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 5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웨딩 데이를 위한 스페셜 뷰티 케어 아이템.



Franchisees Weekend Max Mara:  
에비뉴엘 본점 3F • 에비뉴엘 잠실점 5F • AK 분당점 3F  
KR.MAXMARA.COM



# Style 조선일보

Issue.168 February 2018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WEEKEND

MaxMara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풍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풍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프로그래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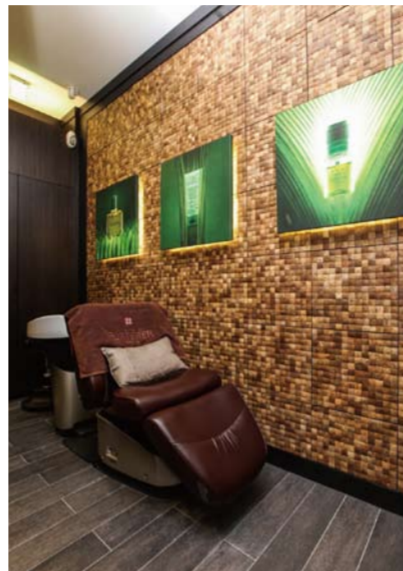
**Jewel SWEET & PURE**

진주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고귀한 분위기를 짙어진다. 영롱한 진주 모티브 주얼리.

(가운데 유티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머더 오브 핏을 세련한 매치 알함브라 링 4백50만원, 반클리프 아펠, 3캐럿 다이아몬드와 최상급 아크아 진주가 만난 벨란스 다이아몬드 프라미어 네크리스 7천1백만원, 5.5mm 아크아 진주 비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별 모티브가 아름다운 어브스트랙트 스타 롱 비드 네크리스 2천5백만원, 태사키, 진주를 다룬 트라피 필 컬렉션 중 트라피 데 기르피에 네크리스 3백50만원, 링 6백50만원, 모두 **가르피에 에디터 베이진**

**Beauty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두피 & 헤어 스파 존, 르네후테르**

당신은 두피 타입에 알맞은 샴푸를 쓰고 있-요? 사실, 피부 타입에 따라 화장품 을 고르듯 두피와 모발 상태에 따라 알맞은 샴푸를 써야 하지만, 샴푸는 가족 공용 품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여성들이 나이에 따라 다른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듯, 두피와 모발도 마찬가지다. 지성, 건성, 민감성, 지루성 등 다양한 두피 타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 코엑스 파르나스몰에 위치한 프랑스 프리미엄 두피 & 헤어 케어 브랜드 르네후테르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면 전문적인 두피 진단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두피와 헤어 케어를 제안해준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닌 두피와 헤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두피 & 헤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뷰티 체험 스펀지. 에디터는 먼저 마이크로 카메라를 장착한 정밀 측정기로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진단했는데, 결과는 지성 두피와 건성 모발을 위한 이중 케어가 필요한 상태. 평소 모발 중심으로 고민하던 샴푸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두피 케어로 이어졌다. 이어서 관련 즉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는 르네후테르의 '스페셜 케어(60분)'를 체험했다. 준비 단계에서 오렌지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고농축 에센셜 오일인 '폼플러스 5' 제품을 사용해 브랜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두피 스케일링 관리를 하고, 관리로 두피 잔체와 묵, 여과 균유 피로를 푸는 마사지로 이어졌다. 각질 때문에 모공이 심하게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두피도 각질 관리가 중요하다. 두피에 쌓인 각질과 피지, 노폐물 등 유해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건조하고 탄력이 부족한 모발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엔 개인별 맞춤 샴푸를 사용하는 헤드 스파 샴푸 테크닉을 통해 두피를 세정하고, 모발 영양 공급 및 집중 케어를 위한 고기능성 헤어 마스크를 도포한 후 헤어 미스트를 통해 제품의 깊은 흡수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행구낸 후 모발에는 에센스, 두피에는 집중 영양 케어 단계로 차원한 앰플까지, 이 모든 과정을 60분 동안 진행했다. 르네후테르의 특별한 헤어 스파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제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할 신규 고객에게는 베이진 케어(40분), 일정 구매액 달성 시 에디터가 체험한 60분간의 스페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두피 & 헤어 케어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르네후테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해보자. 문의 02-555-6544 에디터 **이지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pace 새로운 감성의 지동차 전시관, 제네시스 강남**

건축은 도시의 기억이라고 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질지는 건축물의 정체성과 그 안에 담을 콘텐츠에 달려 있었지만, 공간 자체의 매력과 개성이 한층 더 깊어진다.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제네시스의 첫 전시 공간은 이 같은 맥락에 서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 영등대로에 문을 연 제네시스 강남,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걸맞은 품격과 트렌디한 감성을 부여하는 전시관으로, 도시 재생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램 콜하스가 이끄는 건축 사무소 OMA와 협업해 탄생시켰다. 대개의 자동차 전시장과 달리 밖에서 내부 공간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이곳은 언뜻 이트 갤러리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제네시스 EQ 900부터 G80, G80 Sport, G70까지 전 라인업의 차량을 전시한 세련된 내부는 제네시스의 면면을 밀도 높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심히 디자인한 흔적이 눈에 띈다. 예컨대 천장 전체에 조명을 설치해 전시 차량에 상이 맺히지 않도록 해 제네시스의 라인과 디테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전면 거울을 비추며 차량의 '스타일 룸'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또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코퍼(Copper)를,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움을 대표하는 우드(Wood)를, 자동차에 사용된 다양한 컬러와 가죽을 감상할 수 있는 패브릭(Fabric) 룸을 큐브 형태로 마련해 편안하게 색상과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제네시스 강남은 전문 큐레이터의 1대1 맞춤형 서비스 방식을 제공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2-566-9870, 홈페이지 [www.genesis.com](http://www.genesis.com) 에디터 **고성연**



**Beauty BEAUTY SECRET**

언제 어디서나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 디데이는 물론 허니문에서도 맨 얼굴인 듯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선 특특 두드리기만 해도 금세 촉촉한 광채를 더해줄 쿠션 팩트가 필수다. 소위 '인생 팩트'라 불리는 쿠션 팩트만 모았으니, 클러치 속 신부의 피부를 위한 비밀 병기는 바로 이것.

(왼쪽 유티터 시계 방향으로)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킨 화제의 쿠션 팩트, '조르지오 아르마니 투고 쿠션'은 몇 번만 두드려도 놀랄 정도로 쫀쫀하고 매끄럽게 피부에 밀착되어 마치 본연의 피부가 좋은 듯 은은한 빛이 감도는 맑은 피부를 연출한다. 카바릭과 유자씨 또한 우수하고, 썬방울, 눈 밑 등 굴곡진 부위까지 꼼꼼히 바를 수 있도록 고안된 보호막 형태의 파파가 내장되어 있다(15g 8천9천원). 다음으로 하이엔드 라인에서 선보이는 쿠션 팩트인 '디올 프레스티지 로 쿠션 팩트 드 로즈 SPF 50+ PA+++는 프레스티지 라인답게 성분, 발림성, 편안한 느낌과 더불어 디올 쿠션 제품 중 가장 뛰어난 커버력을 갖춘, 디올 쿠션 팩트의 걸작판이다. 진귀한 로즈 드 그랑빌 정미 꽃잎 5백여 장과 함께 맑게 빛나는 반투명 빛을 함유해 피부를 희하게 밝히고,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가볍게 밀착되는 크리미한 엘트-아웨이 텍스처가 여러 번 덧칠해도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해준다(15g 12만원). 스타일링 시한 블랙 파우더 안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인생로망 로 쿠션 팩트 드 로즈 SPF 23 PA++는 인공 라네아를 함유한 카바릭과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을 자랑하는 쿠션 팩트다. 덧칠해도 뽀얗거나 모공에 끼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특징. 아시아 여성의 피부를 위해 개발한 네 가지 컬러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한다(14g 7만9천원). 나스의 베이시 메이크업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나스 이쿠아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SPF 23/ PA++'는 나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해 수분이 강화된 텍스처가 가벼우면서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선사한다. 라이트 리플렉팅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고유의 눈부신 광채를 끌어내 메이크업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나스만의 노하우다(12g 케이스 2만3천원, 리필 4만원). 사베의 베스트셀러 베이시 제퍼인 레 배주 파운데이션의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베 레 배주 헬스 글로우 필 터치 파운데이션 SPF 25/ PA+++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건강한 활력을 표현해 보다 내추얼한 메이크업을 원하는 이에게 제격이다. 이쿠아-젤 에센스를 함유해 스킨케어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가볍고 촉촉하다. 풍부한 수분력도 클링 효과로 피부에 발랐을 때 즉각적인 상쾌함이 느껴져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에 바로면 진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11g 7만9천원). 에디터 **권유진**

**Exhibition Hi, POP -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힘든 소수의 심오한 형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일상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팝아트에 관심이 있다면 주목할 만한 전시가 있다. 서울 역삼동 르 메르디앙 서울에 자리한 M2컨템포러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Hi, POP -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이다. 회화와 조각을 결합한 '콤비안 페인팅'을 창안한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할리우드 배우나 유명 인사의 우상화, 상품의 대량생산 같은 시대의 속성을 다루면서 팝아트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했던 앤디 워홀(Andy Warhol), 만화나 광고 등을 활용한 독창적인 화법을 완성한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마거 펜과 누르 메 에츠를 전하는 거리 예술가 키스 해링(Keith Haring), 간결한 문화적 상징을 품은 기하학적 작품으로 유명한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이렇게 1950~60년대를 주름잡으며 미국 팝아트 부흥을 이끈 가장 5인의 작품 세계를 꽤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개인 소장품 중 1백80여 점을 선보이는데, 특히 팝아트 운동이 일어난 시점부터 부흥기를 거친 뉴욕에서의 삶을 상상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전설의 팝아티스트 5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 외에도 앤디 워홀이 즐겨 사용한 실크스 크린 기법을 몰스 체험할 수 있는 '프린트 팩토리'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료 외에 소정의 금액을 내면 실크스 크린으로 된 담은 에코 백도 만들 수 있다. 전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 [www.m-contemporary.com](http://www.m-contemporary.com) 에디터 **고성연**

**TASAKI**



1 바진 로드 위 신부의 움직임에 따라 살릴거리는, 우아한 디테일의 웨딩드레스 가격 미정 **제니 라벨 by 소우 브라이덜**, 2 레이스 프레이밍 선과 스 40만원대 **팔레트가비나 by 로스타카 코리아**, 3 플라워 크리스탈 바클 장식과 블루 새틴 소재가 잘 어울린 벨트 1백40만원대 **로자향비에**, 4 선명한 핑크 레더 스트랩,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 라인 드 네이플 미니 8928 가격 미정 **브라게**, 5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매들 모티브 펜던트가 매력적인 Y 네크리스 16만5천원 **스외로브스키**, 6 명예로운 승리를 의미하는 열개수 가지 모티브 브로치 가격 미정 **사넬**, 7 화관을 쓴 듯한 느낌이 은은한 꽃 장식 헤어밴드 가격 미정 **캐빈 울프 by 소우 브라이덜**, 8 버튼 디테일의 슬랏이 돋보이는 화이트 올 캐시미어 코트 4백98만원 **막스마라**, 9 시조넬 플로럴 모티브인 멀티컬러 부케와 틀림을 프린트한 탈리아 클러치 백, 16X20cm, 1백5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10 예시 소재에 크리스탈 장식을 다한 펌프스 힐 1백7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11 보테니컬 프린트가 돋보이는 닷 클러치, 17X10cm, 3백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12 우아한 디자인의 보틀과 에메랄드 시트러스 만다린, 오가닉 레몬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루는 캔디로 향수, 80ml, 14만5천원 **프리다 향수**, 13 파스텔 핑크 컬러의 허로그 병글 80만원대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사넬 02-543-8700 스외로브스키 1661-906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소우 브라이덜 02-541-7077 로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에르메스 02-542-6622 로자향비에 02-6905-3370 프리다 향수 02-3443-1805 막스마라 02-3467-8326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브라게 02-6905-3571

for her  
Selection

생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게 빛나게 해줄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사넬의 우아한 이스트엔트 아방, 갈송, 갈송, 갈송

PLATINUM RARE  
CELLULAR NIGHT ELIXIR  
플래티늄 래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



기능성 화장품

ONE DROP AT NIGHT  
NEWBORN SKIN BY MORNING

SIMPLY THE MOST POWERFUL REJUVENATING POTION TO EMERGE FROM THE LA PRAIRIE LABORATORIES. AN EXCEPTIONAL FORMULA THAT TRANSCENDS EVERYTHING YOU THOUGHT YOU KNEW ABOUT YOUTHFUL SKIN.



1 울 소재의 턱시도 2백만원대, 코트 화이 트 셔츠 32만5천원, 블랙 보타이 18만5천원 모두 보스 맨. 2 블루 컬러 반지갑 75만5천원 벨루타. 3 은빛이 감도는 은은한 화이트 컬러의 기묘세 다이얼과 레드 골드 플레이트로 손자가 유아완 조화를 이루는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워치 5백만원 몽블랑. 4 클래식한 느낌을 지니는 네이비 보타이 32만원 톨도. 5 신사의 품격을 높여줄, 우드 향미를 장착한 감정 장우산 15만9천원 폭스 얼브레타 by 유니. 6 인체적인 세로 림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고, 모든 터치 포인트에 딥 브라운 컬러의 고품격 레더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노바 클래식 컬렉션 20인치 캐리어, 38.5X54.5cm, 69만원 하트만. 7 브띠 다이아몬드 패턴과 페이턴트 송아지가죽 아퍼에 손으로 직접 패턴링한 가죽 밑창을 조합한 솔레노노 대비 1백21만원 루이 비통. 8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느껴지는 크로커다일 가죽 소재의 더블 백, 46X28cm, 1천만원대 보타이 베네타. 9 니트, 코트와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스카프 1백만원대 에르메스. 10 실용적인 프린트 코트 장식의 클라치, 29X38cm, 98만원 까날리. 11 블랙 미들링 패턴 프레임에 플레티늄 피니싱을 다한 메탈 신글라스 3백만원대 카르띠에. 12 고 디테일이 돋보이는 카프스 링크 8백48만원 브라게. 13 에디션 아니 라 일상 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는 패턴 타이 33만원 몽세랑타버나.

몽세랑타버나 02-3444-0077 브라게 02-6905-3571 까르띠에 1566-7277 까날리 02-3479-1140 에르메스 02-542-6622 보타이 베네타 02-3438-7601 루이 비통 02-3432-1854 보스 맨 02-515-4088 벨루타 02-547-1895 톨도 02-6905-3534 유니. 02-542-0370 하트만 02-3448-5914 몽블랑 1670-4810

for him Selection

보타이로 멋을 낸 턱시도와 함께 신라의 품격을 높여줄 웨딩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샤넬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이색적으로 연출한 웨딩 아이템

hartmann

SINCE 1877

FOR SOUL TRAVEL





느리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는

남프랑스식 창조 경제

# faces of Côte d'Azur

남프랑스 코트다쥐르에서 영혼까지  
정화시켜줄 것 같은 지중해의 터키이즈 블루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푸념을 한다. “이곳 사람들은 조상 잘 뒤서 좋겠다”고,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기 많은 관광지인 게 놀랍지 않을 만큼  
코트다쥐르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물론 출중하다. 하지만 이  
지역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데는 지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콘텐츠를  
개발해온 창조적 행보도 큰 역할을 했다. 도시와 마을마다  
전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올드 & 뉴가 적절히 조화된 팔색조 매력을 들여다봤다.

프랑스어로 '푸른 해안'이라는 뜻을 지닌 코트다쥐르(Côte d'Azur). 니스, 칸,  
생트로페, 모나코, 앙티브 등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  
는 인기 만점 도시들이 자리한 지역을 부르는 별칭이다. 19세기 말 프랑스 소  
설가 스테판 리에자르(Stéphane Liégeard)의 책에서 연유된 시적인 이름이  
다. 다른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프렌치 리비에라(French Riviera)'라는 영어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코트다쥐르를 포근하게 감싸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맛이하는 아침의 희열을 찬양한 이는 지겨울 정도로 많다. 일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미술 거장 앙리 마티스는 “매일 아침 이 빛을 다시 볼 수 있  
다는 걸 깨닫자 나는 내 행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다”면서 감격에 겨  
워했다고. 산업화의 거센 물살 덕에 갯빛 하늘이 더 익숙한 프랑스 북부 도시  
에서 지란 마티스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창조적 영감을 쏟아내던 남  
쪽 땅에 물렸다. 오늘날에도 코트다쥐르 지역은 인기가 많다. 불거리 넘친다  
는 프랑스에서 파리에 이어 제2의 관광지로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 “전국구를  
넘어 가히 ‘세계구’ 수준의 인기라 하겠다. 단지 눈부신 풍광 덕은 아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만큼 강렬한 코트다쥐르의 매력은 천혜의 경  
관만이 아니라 대자연의 은총 속에 뿌리내려온 문화 예술적 자산의 풍부함과  
다채로움에서 비롯한다. 자동차로 30분~1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이 지역의  
작은 도시들은 남쪽의 여유로운 정취를 공유하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처럼 저마다의 분위기와 스토리텔링을 뽐낸다. 그렇다고 유서 깊은 역사만 내  
세우는 ‘민속촌에 다녀온 느낌도 아니다. 전통 어린 낭만적 정서를 해치지 않  
으면서도 현대의 감성과 맞닿을 수 있는 요소를 조화롭게 섞어넣는 창조력  
이 코트다쥐르라는 브랜드 파워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올드 & 뉴의 어우러  
짐 속에 매력을 더해가고 있는 네 곳을 소개한다.

## 도시 그 자체로 '종합예술', 니스의 풍부한 매력

해마다 2월엔 열리는 세계 3대 카니발로 유명한 니스(Nice)는 흔히 유럽의 문  
화 수도로 일컬어지는 마르세유와 더불어 남프랑스를 상징하는 항만 도시이자  
유명 휴양지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워낙 니스를 좋아한 나머지 해변을 따라  
‘영국인의 산책로’라는 뜻의 ‘프롬나드 데 장글레를 만들었는데, 3년 전 한 기  
업의 후원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6천여 명이 방문해 3.5km 길이의 이 산책  
로를 가득 채운 장면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도 작가, 미술가  
가 많이 찾고 머물지만 니스는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 터였고, 유적지와 상당  
수의 의미 있는 미술관, 박물관을 거느린 문화적 보고다. 다수의 유적지가 위  
치한 시대에 지구에는 니스에 머물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마티스를 기리기  
위한 마티스 미술관이 있고, 30분 거리의 마을 방스에 있는 로제르 성당, 유  
대인 출신으로 남프랑스에 정착한 대가 마르크 샤갈의 성서 연작 시리즈를 접  
할 수 있는 샤갈 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도 필수 코스로 대접받는 장  
소다. 그뿐만이 아니다. 1990년에 설립된 니스 근현대미술관(Musee d'art  
Moderne et d'art Contemporain)에서는 이브 클랭, 니키 드 생팔 등 20세  
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동시대 미  
술가들의 참신한 기획전이 개최됨은 물론이다. 인기 관광지임에도 현재에 자  
족하지 않는 니스의 진화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중해의 ‘친환경 도시  
(green city)’가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녹지 조성에 앞장서면서 가든 페스  
티발을 개최하고 전기 버스과 트램을 운행하는가 하면 전통에 바탕을 둔 지  
역 요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지



왼쪽 프랑스 관광청(www.france.fr)  
오른쪽 니스 지역 관광청(www.cotedazur.fr)



1 요트의 장미, 제즈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항구도시 앙티브. 스페인 아티스트 하우메 플렌자의 설치 작품 'Le Nomade'  
가 눈길을 끈다. 2 파카소가 실제 작업한 상아지 박물관을 개조해 만든 앙티브 파카소 미술관. 3 코트다쥐르 지역의 대표  
도시 니스의 활기찬 시내. 4 구약성서 연적으로 유명한 니스의 샤갈 미술관. 사진 저작권 H. Lagarde/OTON 5 중세 그림  
같은 성곽 도시 생몰 드 방스. 사진 Elisabeth Rossolin ©Office de Tourisme de Saint-Paul de Vence 6 푸르른  
바다와 빛의 축제를 즐겨 누릴 수 있는 니스 해변. 7 건축가 호세 루이스 세르토가 설계한 생몰 드 방스의 마그 재단 미술관.  
사진 Jean-Jacques L'héritier ©Archives Fondation Maeght 8 마스코 예술의 도시 무쟁에서 2011년 들어선 미술관  
MACM의 앤테니 고펠리 작품. 9 무쟁의 명소로 자리 잡은 앙드레 빌레르 사진 미술관. 빌레르는 무쟁에서 생몰 드 방스  
를 주로 활약한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10 곳곳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코트다쥐르 지역. 사진은 뒤로 생몰 드 방스  
가 보이는 교차로. 1, 2, 3, 4, 6, 8, 9, 10 Photo by Jon Jay



역 일대에서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삼는 '니사르 요리(Cuisine Nissarde)' 프로젝트가 그 결실  
중 하나인데, 해당 레이블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인증된' 레스토랑들을 볼 수 있다.

## 문화예술인들이 사랑한 성곽 도시 생몰 드 방스의 조용한 진화

프랑스에서 다섯 번째 규모인 활기 넘치는 니스와 달리 20km 정도 거리의 인근에 자리한 생몰 드 방스  
(Saint-Paul de Vence)는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마을이다. 중세 요새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 같은 풍경  
을 지닌 이 고요한 성곽 마을은 샤갈이 인생 후반부 20여 년을 보내면서 '제2의 고향'으로 삼은 곳이다. 그  
래서 샤갈은 원래 니스가 아니라 생몰 드 방스에 미술관을 짓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의 묘  
지만큼은 이곳에 남았다. 샤갈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과 인기 스타의 사랑을 받은 이 매력적인 마을은 요  
즘에도 셀럽들의 은신처 같은 별장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주민은 3~4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지만, 미술갤 레스토랑도 있고 럭셔리 호텔도 있다. 무엇보다 생몰 드 방스에는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관  
람객을 끌어들이는 '명물'이 있다. 프랑스 최초로 근현대미술품을 소장한 사립 미술관의 효시인 마그 재단  
미술관(The Maeght Foundation)이 바로 그것이다. 1964년 생몰 드 방스 외곽의 언덕에 문을 연 이 미  
술관은 상업 회랑을 운영하던 마그 부부가 호안 미로,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르주 브라크 등 당대 아티스  
트들과 협업해 '동시대 아티스트의 창조적 놀이터'로 만든 예술의 전당이다. 20세기 대가들의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데다 그들이 몸소 설계나 창작 등의 방식으로 공간 탄생에 참여했다는 독특한 배경 덕분에  
사립 미술관임에도 국보급 공공재로 대접받는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마그 재단 미술  
관 탄생 50돌에 코트다쥐르 지역의 내로라하는 국공립 미술관이 일제히 관련 행사나 전시를 마련하면서  
축하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그 재단 미술관이 가치 높은 소장품에만 기대지 않고  
살아 있는 예술에 초점을 맞춘 창립자 부부의 정신을 기리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존 작가들  
과 꾸준히 협업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봄(3월 24일~6월 17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 추  
상 작가 이배(Lee Bae) 개인전 ('Plus de Lumière(More Light)')가 예정돼 있다.

## 미식과 예술의 고정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무쟁

남프랑스에서 미식의 도시라 하면 주로 리옹을 떠올린다. 하지만 알 만한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리옹 말고  
도 또 다른 '예정의 대상'이 있다. 영화제로 유명한 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쟁(Mougins)이다. 무쟁  
역시 파카소, 크리스찬 디올 등 경쟁한 문화 예술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지만 동화 속 풍경처럼 양중  
은 마을인데, 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를 비롯해 프랑스 셰프들의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래서인지 웅만한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호숫만 포만감을 줄 만한 미식 타운이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는 미식 축제인 레 제투알 드 무쟁(Le Etoiles de Mougins)으로도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3년 전 세상  
을 뜬 프로방스 요리 거장이자 전설적인 레스토랑 플랑 드 무쟁(Le Mouling de Mougins)을 경영한  
로제르 베르제(Roger Vergé)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6년 만든 행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남프랑스의 스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미식 축제를 계기로 무쟁이 점  
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한다. 정적인 분위기가 감들기는 하지만, 느린 듯 뜻깊은 변화가 일어나  
고 있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아틀리에와 갤러리가 많기로도 유명한 이곳에는 7년 전 흥미로운 면면을 갖

춘 작은 미술관도 생겼다. 무쟁을 사랑해 마지않던 한 영국인 아트 컬렉터가  
중세풍 저택을 개조해 만든 MACM(The Mougins Museum of Classical  
Art)이라는 미술관이다. 400㎡ 규모의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고대 그리스, 로  
마, 이집트 유물부터 무쟁에서 말년을 보내고 생을 마친 파카소를 비롯해 샤  
갈, 파카비아, 앤테니 고펠리 등 20세기와 21세기 아티스트의 작품까지 두루 갖  
춘 컬렉션이 들어서 있어 눈길을 끈다. 파카소의 사진을 다수 보유한 앙드레  
빌레르 사진 미술관(Musée de la Photographie André Villers)에서는 과  
거의 천리안 지휘도 엿볼 수 있지만, 미치 엠스타인처럼 뉴욕에서 활동하는 동  
시대 인기 사진작가들의 기획전도 접할 수 있다.

## 세련된 낭만의 절정, 앙티브

파카소 하면 럭셔리 요트가 고고한 학의 무리처럼 늘어서 있는 항구도시 앙티  
브(Antibes)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파카소의 지휘는 남프랑스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을 2백45점이나 소장한 앙티브 파카소 미술관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어서다. 원래 로마의 도시였던 앙티브는 15세기 프랑스령  
이 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왔는데, 파카소 미술관은 요새로 지은  
그리말티 성(堡)을 개조해 만든 박물관이었다. 1946년 초대받은 파카소가  
이 성을 아틀리에로 삼아 머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고, 훗날 그가 앙티브 시에서  
명예 시민 칭호를 받자 결국 이곳은 파카소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해마다 이  
미술관을 찾는 이들이 10만 명이 훌쩍 넘으니 현명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코  
발트빛 바다를 눈앞에 둔 앙티브의 작은 만에서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활동하  
는 공공 미술 작가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의 8m 높이 설치 작품을 보  
노라면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스페이스 키넥션'이 느껴지는 듯하다.  
문학을 좋아한다면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 때문에 앙티브를  
찾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앙티브의 수려한 해변인 주앙 레 팡(Juan les Pins)  
에 자리한 벨레스 리브 호텔에 살았던 피츠제럴드는 프렌치 리비에라의 전성기  
를 배경으로 지중해의 운치를 시적으로 담아낸 '밤은 부드러워'라는 소설을 집  
필하기도 했다. 물론 앙티브의 황금기는 21세기에도 펼쳐지고 있다. 워낙 빼  
어난 자연경관에 중세의 성벽을 비롯한 문화유산도 풍부하게 거느리고 있지만  
스포츠 행사, 각종 컨퍼런스 등을 활발히 유치해 고부가가치 마이스(MICE) 산  
업의 수혜를 누리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적으로 영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앙티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낭만의 미학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장미 도시'로 명성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제2 페스티벌인 '쥘앙 제2 페스티벌'을 반세기 훌쩍 넘  
게 이어오고 있으니 두말해 무었랴. 글 **고성현**





**Fancy Elegance**

(왼쪽부터) 세련된 오벌 형태 버클과 오묘한 블루 색감 새틴 소재가 어우러진 펌프스 힐 1백65만원 **마블로 블라네**, 블랙 레이스 슬링 백 슈즈 1백25만원 **자담비티스타 발리**, 발동 위 크리스탈 장식 스트랩이 돋보이는 앵글 스트랩 슈즈 2백만원대 **오프 화이트 X 자미추**, 물결가죽 소재의 꽃모티브가 눈길을 사로잡는 하이힐 펌프스 1백60만원 **루이 비통**.

스바르코비 유한정  
어니스트 이병, 김서  
에디터 이지연

# fairy Sh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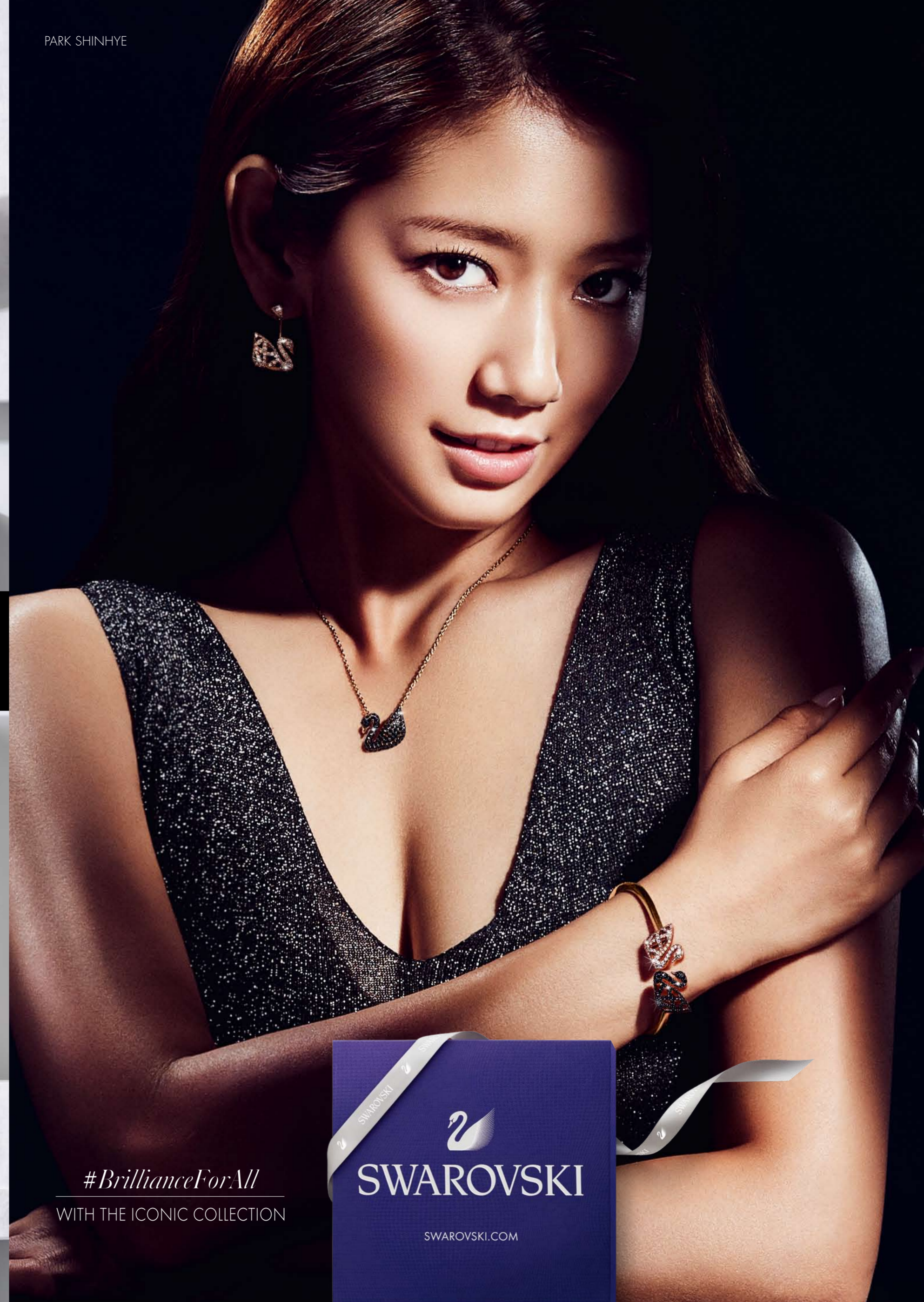
웨딩 슈즈로 프리포즈받기도 하는 요즘, 주얼리만큼이나 반짝이는 웨딩 슈즈는 여자들의 로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날, 드레스 끝자락 아래 모습을 드러내는 웨딩 슈즈는 화려할수록 진가를 발휘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eautiful Decorated**

리본 모티브 진주 장식의 오픈토 슈즈 1백32만원 **렌디**, 유니크한 컷아웃 디자인에 스와로브스키를 다한 화려한 매력의 오픈토 샌들 2백38만원 **세로지오 로시**, 일상에서도 편하게 매치 가능한, 군더대기 없이 간결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스티플레드 힐 93만원대 **코자히비에**, 반짝이는 크리스탈과 매트한 스티드가 어우러진 펌프스 2백38만원 **쥬세페 자노티**, 브랜드의 상징인 뾰족한 스파이크와 스와로브스키, 스타드 디테일로 화려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뽐내는 펌프스 1백8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마블로 블라네 02-3443-2113 **자담비티스타 발리** 02-6905-3357  
자미추 02-3443-9469 **루이 비통** 02-3432-1854 **렌디** 02-2056-9023  
세로지오 로시 02-6905-3740 **코자히비에** 02-6905-3370  
쥬세페 자노티 02-543-1937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BrillianceForAll

WITH THE ICONIC COLLECTION



SWAROVSKI.COM





**Timeless Classic**

(맨 유티리티 시계 방향으로) 송아지 가죽 소재의 톤 다운된 버리 컬러 원 팁 슈즈 1백48만원대 **아. 테스토니**, 포말한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38만원 **브리오니**, 고급스러운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로퍼 1천4백만원대 **벨루티**, 다크 브라운 컬러 스트레이트 팁 슈즈 1백18만원 **에르메네제갈도 제나**, 매력적인 와이드 브라운 컬러가 돋보이는 스트레이트 팁 슈즈 1백38만원 **카본**.

**Stand by me**

남자 역시 잘 차려입은 타시도만큼이나 잘빠진 구두가 필요하다. 격식을 중요시하는 이들을 위한 품격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세련되고 트렌드한 스타일까지, 예비 신랑을 위한 웨딩 슈즈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rendy Formal**

(맨 유티리티 시계 방향으로) 리본 매듭 포인트가 특징인 블랙 에. 펠 로퍼 1백34만원 **쥬세페 자노티**, 편칭 디자인을 다한 세련된 디자인의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2백20만원 **톨 포드**, 단정로운 크리스탈 인브로이더리 장식 로퍼 2백1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브랜드 내임 Louis와 V를 각각 자수로 수놓은 벨벳 소재 로퍼 1백10만원대 **루이 비통**.

아. 테스토니 02-554-4310 **브리오니** 02-516-9686 **카본** 02-3449-5394 **벨루티** 02-547-1895 **에르메네제갈도 제나** 02-3479-6297 **쥬세페 자노티** 02-543-1937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톨 포드** 02-6905-3534 **루이 비통** 02-3432-1854

▲퍼레이드 우한정 이나아트 이세형, 김은서 이디터, 이진민

**SHINY BAG | BE CLASSY**

샤이니백,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Munsingwear** 



투브 톱 핏 드레스 가격 미정 **립 아크라 by 헤티크 뉴욕**, 깃털 모티브의 플럼 드 샤를 라인의 네크리스와 브라이덜링 각 9백만원대, 1천4백만원대, 양자에 착용한 프리아에 브라이덜 컬렉션 다이몬드 링 4백만원대, 감지 위쪽에 착용한 코코 크러쉬 브라이덜 컬렉션 밴드 링 2백60만원대, 감지 아래쪽에 착용한 가멜리아 브라이덜 컬렉션 슬리터이 링 3천4백만원대, 중자에 착용한 링은 모두 프리아에 브라이덜 컬렉션 링으로 각 4백만원대(다이몬드 링), 1백60만원대 (밴드 링), 양자 위쪽에 착용한 마들라세 브라이덜 컬렉션 슬리터이 링 1천1백만원대, 양자 아래쪽에 착용한 프리아에 브라이덜 컬렉션 다이몬드 링 4백만원대 모두 **사실 화인주얼리**.



# Brilliant Moments

가녀린 보디라인을 감싸는 섬세한 웨딩드레스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드러난다. 꿈같이 아름다운 웨딩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mok jung wook*



(왼쪽) 화이트 레이스 드레스 가격 미정 **플라티넘 by 마리벨르**, 대줄 나이트 스킴 컬렉션의 코멧 플러스 다이아몬드 이어링 4백70만원대, (네크리스 위부터 아래) 코멧 플러스 네크리스 2백만원대, 벨런스 솔로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이코아 체인 통 네크리스 2백만원대, 오른손 약자에 착용한 진주 & 다이아몬드 컬렉션 링 3백20만원대, 왼손 감지에 착용한 벨런스 클래식 링 1천5백만원대, 왼손 약자에 착용한 코멧 플러스 다이아몬드 링 3백70만원대 모두 **타사키**.

(오른쪽) 투드 톱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갈리아 라하브 by 마리벨르**, 이코아 진주 이어링 60만원대, (네크리스 위부터 아래) 이코아 진주 벨린트 60만원대, 이코아 진주 비드 네크리스 4백만원대, 위스타리아 네크리스 2천만원대, 오른팔에 착용한 손즈 다이아몬드 브라이덜링 2백20만원대, 왼손 감지에 착용한 위스타리아 링 2천만원대, 왼손 약자에 착용한 데이지 시그처 트리아브 링 2백80만원대 모두 **타사키**.





(왼쪽) 화이트 튜브 드레스 가격 미정  
**리그레타 나우 by 소유 브리아넬**, 저스트 앵글루  
 이어링 2천5백만원대, (네크리스 유티터) 저스트  
 앵글루 네크리스 8백20만원대, 팬더드 카르띠에  
 네크리스 5천만원대,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러브  
 링 1천5백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팬더드 카르띠에  
 브라이슬릿 9천5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오른쪽) 리본 장식의 드레스 가격 미정  
**리즈 마르타네즈 by 소유 브리아넬**, 팬더드  
 까르띠에 이어링 4천5백만원대,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팬더드 카르띠에 링 8천5백만원대, 왼손 검지에  
 착용한 러브 링 4백2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왼쪽) 컬러 자수 드레스 가격 미정 **알베르타  
 페레티 by 아틀리에 쿠**, 캣아웃 로터스  
 미니 이어링 1천2백만원대, 왼손 약지에 착용한  
 베를리 시그처 링 3백10만원대, 검지에  
 착용한 베를리 다이아몬드 링 1천5백만원대,  
 약지에 착용한 베를리 솔리테어 링 0.77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모두 **반들리프 아펠**.

(오른쪽) 스킨 톤 튜브 드레스  
 가격 미정 **안젤 드로이 by 아틀리에 쿠**,  
 (네크리스 유티터) 매직 일함브라 롱 네크리스  
 7백20만원대, 스위트 일함브라 롱 네크리스  
 9백30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베를리 클로버  
 브라이슬릿 3천2백만원대, 약지에 착용한 스위트  
 일함브라 링 2백30만원대 모두 **반들리프 아펠**.



블랙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티파니 하드웨어 비드 후크 이어링 40만원대,  
 (네크리스 위부타) 티파니 하드웨어 볼 펜던트 40만원대,  
 티파니 하드웨어 그레듀에이티드 링크 네크리스 2백만원대,  
 (왼쪽부터) 티파니 빅토리아 키 펜던트 1천3백만원대,  
 티파니 가든 키 펜던트 1천3백만원대, 티파니 플로르  
 드리스 키 펜던트 9백만원대, 티파니 노트 키 펜던트  
 5백만원대, 오른쪽에 착용한 티파니 보우 컷 1천만원대,  
 티파니 하드웨어 볼 비아 퍼스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티파니 빅토리아 다이아몬드 링  
 8백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티파니 빅토리아 다이아몬드  
 라인 브레이슬릿 2천만원대, 티파니 각테일 2밴드 파베 워치  
 2천3백만원대, 왼손 약지에 착용한 티파니 세팅  
 슬리브어링 가격 미정 모두 **티파니**.



(왼쪽) 니트 카디건, 플라츠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네크리스 위부타) 리본 매듭 장식의  
 인슬런스 컴팩션 네크리스 2천3백만원대, 조세핀 컴팩션  
 플드 드 뉴 펜던트 6천3백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리앙  
 세팅시용 다이아몬드 링 4백30만원대 모두 **쇼메**.  
 (오른쪽) 브라운 니트 베스트와 피치 컬러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인슬런스 컴팩션 이어링  
 4천3백만원대, 조세핀 오브 프랑체스카 에르 네크리스  
 가격 미정, 오른쪽에 착용한 리앙 세팅시용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오른손에 착용한 리앙  
 세팅시용 다이아몬드 링 4백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리앙  
 세팅시용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왼손에  
 착용한 인슬런스 컴팩션 링 2천2백만원대 모두 **쇼메**.





오렌지 컬러 니트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사넬, 세르펜티 컬렉션 아이징 1천9백만원대, (네크리스 우부터) 세르펜티 컬렉션 네크리스 6천4백만원대, 디바스 드림 컬렉션 롱 네크리스 1천5백만원대, 오프팔에 착용한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컬렉션 브레이슬릿 8천4백만원대, 오른손 손가락에 착용한 세르펜티 바이퍼 링 5백만원대, 왼손 손가락에 착용한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핑크 골드 링 2백만원대, 왼팔에 착용한 세르펜티 컬렉션 브레이슬릿 2천2백만원대, 비제로원 컬렉션 골드 브레이슬릿 1천7백만원대, 왼손 손가락에 착용한 디바스 드림 컬렉션 링 2백만원대, 왼손 중지에 착용한 세르펜티 바이퍼 컬렉션 링 7백만원대, 왼손 약지에 착용한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화이트 골드 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헤어 손혜진  
메이크업 원조연  
모델 서유진, 장형술  
스타일리스트 박세준  
네일 최지숙(브러시 리우지)  
플라워 스타일링 임태현(kottbati)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헤리티지 뉴욕 02-514-4010  
사넬 화인주얼리 02-3442-0962  
마리엘르 02-543-3183  
타사키 02-3461-5558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까르띠에 1566-7277  
아틀리에 루 02-517-3889  
반블리프 아틀 00798-852-16123  
빌렌도노 02-2015-4653  
타파니 02-547-9488  
다울 02-3480-0104  
프리카다 02-3218-5331  
소메 02-3442-3159  
사넬 080-200-2700  
불가리 02-2056-0171

# Dear my love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의 서약이 울려 퍼지고, 그 속에 사랑의 증표가 되어줄 아름다운 웨딩 주얼리와 위치가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한다. 이 소중한 순간을 위해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지는 하이 주얼리 웨딩 링부터 디자인과 기술력을 모두 겸비한 위치까지 커플의 취향을 고려해 엄선한 주얼리 &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플라워 스타일링 임태현(kottbati) 아티스트도 참여

## The eternal classic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바글라 루체아 여성 워치 시계의 페이스는 모든 화면서 심플하지만, 간혹미가 느껴지는 독특한 브레이슬릿을 더해 유니크한 면모를 품은 여성 워치. 불가리 대표 아이콘인 세르펜티의 분절 구조를 형상화한 7방향적인 브레이슬릿은 각 링크가 서로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유의 볼륨감을 선사한다. 특히 기존 루체아 워치를 23mm로 보다 슬림하게 재해석한 바글라 루체아 워치는 유니크함과 여성미를 동시에 원하는 예비 신부에게 추천한다. 5백만원대. **까르띠에 랜더 드 까르띠에 여성 워치** 여성들의 로망이자 까르띠에의 영원한 아이콘인 랜더 컬렉션의 여성 워치로, 아름다운 주얼리로서의 가치까지 지닌 제품이다. 유연한 링크 구조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마치 편디 한 마리를 손목에 올려놓은 듯 착감는 착용감을 선사하고, 더불어 특유의 매끄러운 반쪽인 덕분에 단독으로도, 다른 주얼리와 믹스 매치해도 굉장히 멋스럽다. 2천7백만원대. **브라이덜 네놈 여성 워치** 유일한 아름다움과 클래식한 정수를 보여주는 브라이덜 베스트셀러 여성 워치.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화려함을 자녀 예물 시계로 인가다. 나폴리의 여왕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상징적인 에그 셰이프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마더 오브 펄 다이얼로 세련미를 더했으며, 로마네오의 파워 리저브 기능으로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했다. 4천4백만원대. **오메가 씨마스터 이쿠아 테라 여성 워치** 간결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이 특징으로, 어떤 맥락에나 잘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오메가의 대표 여성 워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세팅의 오토매틱 여성 워치라는 점에서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인덱스 세팅으로 여성미를 더했고, 오메가의 강렬한 상징인 오메가 칼라버 4061을 장착했다. 4백만원대.



**Fantasy of diamond**

(Van Cleef & Arpels, 왼쪽부터) 빈클리프 아펠의 상징적인 원형 비즈 밴드가 돋보이는 베를리 솔리테어 링 1.76캐럿 기준 6천만원대, 중앙의 다이아몬드를 감싼 밴드 디자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쿠튀르 링 0.7캐럿 기준 1천9백만원대 모두 **빈클리프 아펠**.

(Cartier, 왼쪽 윗부터 차례대로) 프롱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밴드 전체에 대해 화려한 광채를 선사하는 까르띠에 웨딩 밴드 총 1.34캐럿 기준 1천2백만원대, 4개의 돌을 필레트와 와이어 보더로 이루어진 마운트 디자인으로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독보적인 우아함을 자랑하는 1895 솔리테어 링 1.76캐럿 기준 6천2백만원대, 아이코닉한 트라피티 광을 재해석해 3개의 고리가 신비하게 얽힌 디자인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트라피티 루반 솔리테어 링 1.13캐럿 기준 3천9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Bulgari,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5.32캐럿의 진귀한 옐로 다이아몬드를 우아한 타원형으로 세공해 대담한 디자인을 완성한 그라페 하이 주얼리 링 가격 미정, 불가리를 대표하는 브리델 컬렉션으로, 볼륨감 있는 밴드 디자인이 특징인 베네치아 트르셀로 링 1캐럿 기준 3천7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감싸 안은 듯 디자인한 두 줄의 브러시 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인모트로 다모레 링 1캐럿 기준 4천9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Tiffany & Co., 윗부터)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두 줄로 비드 세팅한 옐로 다이아몬드 솔리스트 링 1.06캐럿 기준 2천7백만원대, 6개의 프랭크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원형이 들어 올려 광채를 극대화한 티파니 세팅 링 1.54캐럿 기준 4천9백만원대, 단독으로 착용해도 화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티파니 임브레이스 밴드 링 3.5mm 기준 1천1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Graff, 윗부터) 3.02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양옆에 오벌형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보적인 화려함을 선사하는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중앙의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공중에 떠 있는 듯 세팅해 유니크함을 더한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 링 가격 미정 모두 **그라프**.

(Tasaki, 왼쪽부터) 일본의 유언한 곡선을 형상화한 밴드 디자인이 특징인 바운드 솔리테어 링 1.57캐럿 기준 1천2백만원대, 심플하면서도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피아씨레 솔리테어 링 2.04캐럿 기준 4천7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 본 화보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다이아몬드 등급과 컬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Cartier**  
까르띠에 탱크 루이까르띠에 컬렉션 1917년 탄생한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탱크 워치는 남녀 누구에게나 로망인 워치다. 탱크 워치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선보인 새로운 버전의 워치로, 여성 시계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베젤과 핑크 악어 가죽 스트랩이 우아한 매력을 뽐낸다. 2천1백만원대,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갈색 옐로게이터 가죽 스트랩이 아우라져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남성 워치 1천5백만원대.



**Omega**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mm & 스피드마스터 레이싱 워치 더욱 간결하고 독창적인 요소를 활용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클래식한 요소와 스포티한 무드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액티브한 활동을 즐기는 카말에게 추천한다. 브라운 알루미늄 링과 타카미티 스키텔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과 오리지널 스피드마스터의 스포티한 매력을 지니는 38mm 여성 워치 7백만원대, 스피드마스터의 모터 레이싱 유산을 가래해 매트 블랙 다이얼 버전으로 선보이는 남성 워치 1천만원대.



**Bulgari**  
불가리 옥토 로이 워치 불가리 남성 워치를 대표하는 옥토 컬렉션 중에서도 매력적인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옥토 로이 워치. 브랜드의 상징적인 팔각 행위의 옥토 케이스를 한층 부드럽게 재해석했으며, 로즈 골드와 스틸의 58개 단면을 갖춘 건축적 디자인이 남성미를 더욱 부각한다. 8백만원대.



**Piaget**  
피아제 포제션 워치 순백의 스템을 연상시키는 새틴 사틴 스트랩에 눈길을 끄는 여성 주얼리 워치. 29mm의 아담한 케이스 사이즈에 베젤 주위로 3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눈부시다. 1천9백만원대.





**Longines**  
**룬진 마스터 컬렉션 & 황제 비타 워치**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중 보다 접근하기 쉬운 라인지의 클래식 워치를 꼽으라면 단연 룬진이다. 룬진 워치가 예뻐서 시장에서 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이런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 때문. 베스트셀러 남성 워치인 마스터 컬렉션은 세련된 문 페이스, 크로노그래프는 물론 24시간 월드 타임 존 기능까지 갖추어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마니아뿐 아니라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 제격이다. 4백만원대,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매력적인 스페어 케이스와 우아한 레드 컬러의 가죽 스트랩이 만나 여성미를 더욱 극대화한 황제 비타 여성 워치 3백만원대.



**Mido**  
**미도 벨루나 블루레이 & 비란셀리 프리즈마 워치** 합리적인 가격에 하이 퀄리티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워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미도의 대표 예뻐 워치. 전 세계 유명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시계 디자인 또한 빼어나.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의 화려한 유리 돔 지붕의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세련한 선웨이 기묘세 패턴의 블루 다이얼이 돋보이는 벨루나 블루 레이 남성 워치는 최대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심장으로 강인한 면모를 드러낸다. 1백16만원. 프랑스 엔에 워치인 오페라하우스의 둥근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미묘한 곡선이 돋보이는 프리즈마 여성 워치 1백38만원.



**Chanel Fine Jewelry**  
**샤넬 J12 컬렉션** 이젠 샤넬의 아이콘이 된 J12 워치. 매우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한때적이고 세련된 룩을 완성한다. 남성용 위한 38mm 사이즈의 강렬한 블랙 세라믹 워치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7백만원대. 33mm 사이즈의 화이트 세라믹 여성 워치는 은은한 핑크빛이 감도는 마더 오브 펄 다이얼을 장식해 스포티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인다. 7백만원대.



**Van Cleef & Arpel**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파베 워치 & 파페르 아펠 워치** 사랑과 행복, 건강, 부를 의미하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알함브라 모티브 케이스에 베젤부터 다이얼까지 네 가지 각기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반클리프 아펠을 선보이는 여성 주얼리 워치 9천2백만원대. 모던함과 심플함이 돋보이는 파페르 아펠 남성 워치는 브랜드 창립자의 이름을 딴 특별한 모델이다. 슬림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베젤의 폭을 최소화해서 시간적인 가벼움과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1천8백만원대.



*Just the two of us*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용 드라이브 착용하게 되어 있는 러브 브레이슬릿에서 모티브를 얻어 의미까지 로맨틱한 스크류 문양이 특징인 러브 링, 각 4백40만원대, 4백20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건축가 지하 하디스가 디자인한, 기하학적이고 유연한 곡선이 돋보이는 비즈로윈 디자인 레전드 링, 유니크하고 볼드한 디자인으로 핑스 포인트 주얼리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각 2백만원대 모두 **블가리**. 단숨하고 평범한 모티브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자스 앤 글루 링,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는 커플에게 추천. 각 1천5백만원대, 2백70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단조로운 디자인을 탐미한 중성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피아노 컬렉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밴드 디자인이 돋보인다. 솔리터 링 5백80만원대, 듀엣 링 4백10만원대, 블랙 다이아몬드 링 1백70만원대 모두 **타사키**. 간결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커플 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베스트셀러 커플 밴드인 티파니 클래식 말그린 웨딩 밴드 링. 반지 안쪽에 원하는 메시지를 새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2백만원대. 디자인이 모던해 스타일리시한 남자에게 제격인 티파니 T 투 링. 다이아몬드 내루우 링 6백만원대, 로즈 골드 링 2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샤넬의 상징적인 클렘 패턴을 다채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밴드 디자인을 완성한 코코 크라쉬 브라이덜 밴드 링 1백80만원대, 1.01캐럿의 영롱한 센터 다이아몬드와 클렘 모티브의 밴드 모티브가 어우러져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는 코코 크라쉬 다이아몬드 링 4천만원대 모두 **샤넬 화관주얼리**. 예를 시계로도 사랑받는 컨스텔레이션 워치의 베젤에서 영감을 받은 컨스텔레이션 링. 각 4백만원대, 3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에디터 권유진, **이진연**



옐로 원피스 3백89만원대,  
그레이 나뭇잎 앵클부츠 로코코  
1백32만원 모두 펜디.

플라워 인트로이더리로  
장식한 원피스 3백89만원대,  
라이트 블루 파우퍼 에센셜리  
백 5백92만원 모두 펜디.

# Sweet Spring

시대를 초월하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배우 김희선과 펜디의 만남.  
그녀만의 우아한 에티튜드로 완성한  
펜디의 2018 리조트 컬렉션을 공개한다.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안젤라한 헬라워의 플라워  
프린팅 원피스 2백94만원,  
블랙 리본스 피어스  
93만원 모두 렌디.

핫 핑크 체크 수트 세트  
4백17만원, 수트 팬츠 1백17만원,  
화이트 실크 블라우스 1백49만원,  
크림 컬러 피카부 에센셜리  
5백92만원, 베일 핑크 스타레토  
피어스 93만원 모두 렌디.







블랙 시스루 레이스 원피스  
3백42만원, 도브 컬러  
피카부 에센셜리 5백9만원,  
블랙 컬러 스티레토 피어스  
93만원 모두 렌디.



옐로 퍼트리밍 트렌치코트  
6백만원대, 블랙 피카부 에센셜리  
5백9만원 모두 렌디.

문의 02-2056-9023

헤어 **채수훈**  
메이크업 **오윤희**  
스타일리스트 **구원서**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 a creative Journey

“**〈마드모아젤 프리베(Mademoiselle Privé)〉** 서울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쳐 아주 기쁩니다. 전시가 4주 동안 열렸는데, 기간을 연장해도 될 뻔했어요. 작년 서울에서도, 제작년 런던에서도, 이번 홍콩 전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매번 샤넬 브랜드를 보다 깊이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브루노 파블로브스키(샤넬 패션 총괄 사장)**

2017년 6월, 서울 D 뮤지엄에서 성황리에 마친 〈마드모아젤 프리베〉 전시가 2월 10일까지 홍콩에서 그 흥미로운 여정을 이어간다. 런던, 서울, 그리고 홍콩까지, 샤넬이 창조한 세계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전시는 홍콩 현지의 특색을 살려 서울 전시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 홍콩 PMQ에서 샤넬의 독창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지난 1월 13일, 복합 문화 공간이자 젊은 아티스트들의 성지인 홍콩 PMQ에 빨간 네온사인인 켜졌다. 샤넬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샤넬의 창시자이자 역사적인 아이콘 가브리엘 샤넬을 형상화한 네온사인이다. 런던과 서울을 거쳐 올해 홍콩 PMQ에서 개최하는 〈마드모아젤 프리베(Mademoiselle Privé)〉 홍콩은 이처럼 런던, 서울 전시와는 또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PMQ 건물의 야외 정원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는 이번 전시는 홍콩만의 컬러와 특색을 살려 가브리엘 샤넬의 혁신적인 비전과 독창적인 추진력, 그리고 현재 샤넬 하우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칼 라거펠트의 시각을 재해석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야외 전시 공간에 걸맞게 아름다운 새소리와 웰컴 음성 메시지가 정원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중에 매달린 강봉가 31번지 건물을 형상화한 창문 모티브 사이사이로 언뜻 보이는 전시장의 모습은 이 신비로운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야외 전시장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홍콩의 상징적인 컬러이자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레드 컬러를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오직 홍콩 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홍콩 현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샤넬의 오래된 아카이브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홍콩의 비주얼 아티스트 어너더 마운틴 맨(Another Mountain Man)의 진주 설치물이 눈에 띄고, 홍콩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AllRightsReserved(ARR)'의 설립자 SK 램(SK Lam)의 작품인 커다란 카멜리아 형상의 대형 조형물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특별한 소망을 담은 카멜리아 코르사주를 붙여 완성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와 함께 서울 전시에서도 볼 수 있었던, 샤넬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다양한 토렘과 시간을 초월한 아이코닉 향수인 샤넬 N5의 스토리를 담은 존은 홍콩에서도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홍콩의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전시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하며 즐기다 보면, 어느새 전

● sponsored by CHANEL



1 칼 라거펠트의 감각적인 터치로 완성한 샤넬 오트 쿠튀르 전시 공간. 2 PMQ 야외 정원은 SK 램의 카멜리아 형상 대형 설치물과 다양한 토렘이 조화를 이룬 전시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3 샤넬의 영원한 아이콘, 샤넬 N5 향수 존 입구. 4 성서적이고 아름다운 큐레이팅이 돋보이는 페넬라 전시실. 5 홍콩을 상징하는 네온사인, 강봉가 31번지 건물을 형상화한 모티브가 시선을 사로잡는 전시실 입구. 6 샤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비주드 디아람을 만날 수 있는 하이 주얼리 존. 7 전시를 관람 중인 샤넬의 뮤즈, 가수 페렐 윌리엄스. 8 서울에서도 진행된 워크숍 프로그램은 홍콩에서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한다. 9 〈마드모아젤 프리베〉 홍콩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시의 핵심이자 샤넬만의 독창성이 녹아든 결과물인 오트 쿠튀르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실제 샤넬 하우스를 상징하는 의상과 함께 의상 제작 과정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한 섹션은 홍콩 전시를 위해 업그레이드한 부분이다. 또 샤넬 패션 총괄 사장인 브루노 파블로브스키가 하

이라이트로 꼽은 페넬라 전시실에는 트위드 소재를 포함해 다양하고 아름다운 페넬라를 곁집이 커튼처럼 늘어뜨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샤넬의 오트 쿠튀르 의상을 전시해 오직 최고의 소재만으로 작업하는 샤넬의 열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만이 아니다. 칼 라거펠트의 터치를 더한 빨간색 회전목마 위에 배치한 12개의 오트 쿠튀르 의상은 제품을 넘어 샤넬의 혁신성과 칼 라거펠트가 지난 뛰어난 감각적 재능을 극대화한 하나의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가을 곳은 이 전시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하이 주얼리 섹션이다. 1932년에 선보인 비주드 디아람의 라데이션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당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주얼리 디자인을 선보인 가브리엘 샤넬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신을 고스란히 담았다. 여기에 샤넬 하우스의 뮤즈인 페렐 윌리엄스, 지드래곤, 수주 등이 해당 주얼리를 착용한 스냅사진을 전시해 과거와 현재의 오마주를 표현했다. 이 밖에도 전시장 곳곳에는 증강현실 체험 존을 배치해 재미를 더했고, 전시 내내 다채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PMQ 7층에 마련된 예술가 아틀리에로 이어진다. 이곳에선 샤넬의 공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클래스가 열리는데, 이는 오로지 샤넬 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테니 이 기간에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놓치지 말 것.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에 이어 홍콩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샤넬의 철학과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강조한 샤넬, 샤넬 하우스의 비전과 철학은 다음에 이어지는 샤넬 패션 총괄 사장인 브루노 파블로브스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자. 문의 080-200-2700 에디터 권유진/홍콩 현지 취재

## interview with Bruno Pavlovsky



Q 〈스타일 조산업〉와는 두 번째 인터뷰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는데, 그 뒤로 여러 피드백을 받았을 거 같다. 반응은 어떠했고, 당신의 소감은 어떠했나. 제 기분이 어땠나요? (웃음) 당연히 서울 전시를 성공적으로 끝내 아주 기쁩니다.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어요. 전시가 4주 동안 열렸는데, 기간을 연장해도 될 뻔했어요. 특히 워크숍 프로그램은 모두 예약이 꽉 찰 정도였죠. 이것이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지 알면 우리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으니까요. 배운 점도 많습시다. 저희는 샤넬 하우스가 지금껏 해온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고 싶지 않아요. 전시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보다 풍부한 전기를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서울 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전시가 열린 장소입니다. D 뮤지엄은 정말 멋진 곳이라 모든 면이 좋았습니다. 아꼈던 저는 전기를 볼 때마다 깊은 인상을 받고 합니다. 런던 전시 때도, 서울 전시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20년 정도 찾았는데 매년 감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멋지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오트 쿠튀르 드레스에는 지난 10년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샤넬만의 방식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인 셈이죠. 이곳 홍콩의 중심에서 열리는 전시는 또 다른 전지지만 이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보는 것들 중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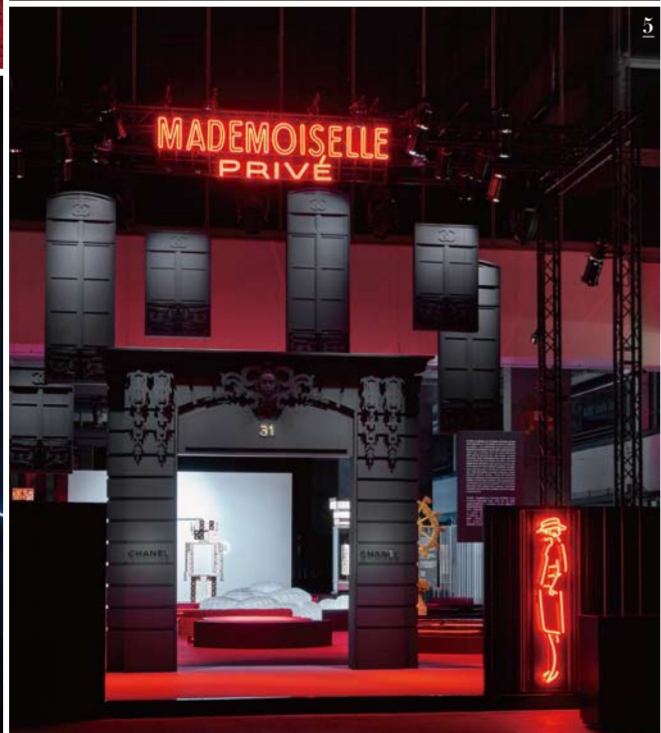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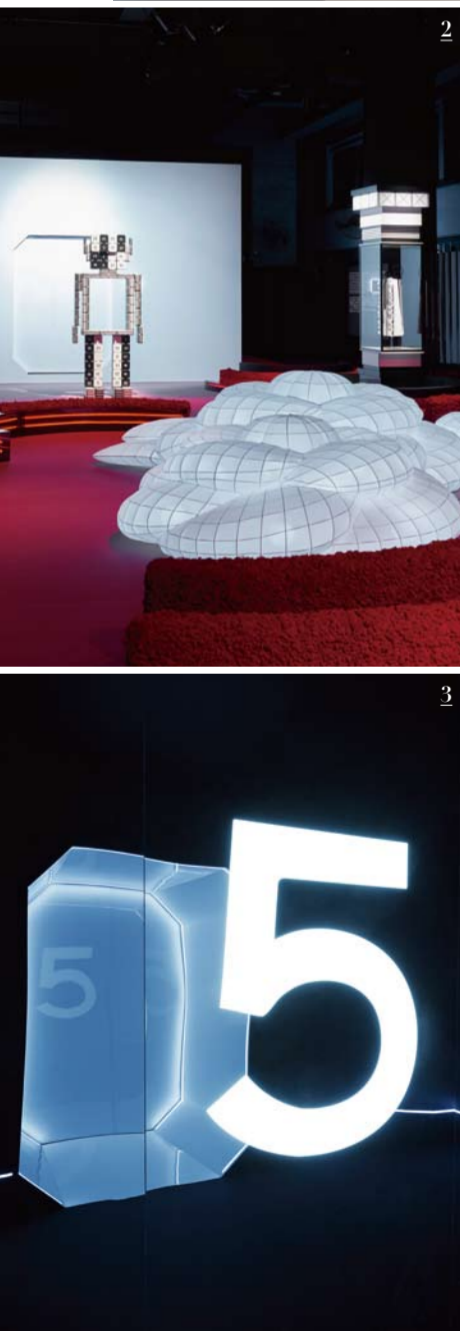
Q 런던, 서울에 이어 홍콩까지, 이처럼 다양한 도시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현지 고객들이 만족할 때 정말 기쁘요. 어느 도시에서나 한결같은 샤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객들이 유대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샤넬은 매년 80억 달러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주요 쇼판 해도 여섯 차례 개최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창조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노하우와 장인 정신을 발휘했는지 등 말이에요. 런던, 서울, 홍콩, 더불어 앞으로 방문할 전 세계 여러 도시에도 관람객들에게 소망을 통해서만 제대로 보여주지 힘든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전시에는 쇼 무대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뒤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말하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샤넬의 자선 말이에요. 〈마드모아젤 프리베〉 전시는 샤넬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한 전시예요. 그러니까, 샤넬의 독창성을 이야기하는 전시인 셈이죠. 전시장에 전시해놓은 것은 상품이 아니라 샤넬 브랜드의 세 가지 아이콘입니다. 쿠튀르와 N5, 파인 주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품이 아니라 샤넬만의 독창성과 감각, 샤넬 브랜드의 DNA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예요. 이것들은 실제로 보여주거나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번 전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샤넬을 차별화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전시에서 소재의 혁신을 보여 주었어요. 샤넬 쿠튀르를 들여다보면 혁신적인 면이 많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소재를 믹스 매칭하기도 해요. 실크와 콘크리트, 네오프렌 같은 소재도 사용하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소름 돋게 그렇게 재현한 요소 하나 하나까지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러한 요소를 특별한 비주얼에 부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샤넬 컬렉션이 갖춘 이러한 창조적인 과정이 샤넬을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샤넬 브랜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콘셉트, 브랜드의 역사가 담긴 여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전기를 통해 샤넬이 지난 여러 가지 방법과 샤넬의 DNA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전지에서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샤넬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자산들에 대해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런던, 서울에 이어 이번 홍콩의 홍콩의 전시 관람객들에게 또 한번 보여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시장에 놓인 오트 쿠튀르 의상에서 그 안에 녹아든 장인 정신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Q 홍콩 전시와 서울 전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전시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런던과 서울을 거쳐 먼저 세르게이 게겔은 점을 반영하려고 했어요. 특히 샤넬 브랜드에 담긴 가치를 사람들이 더욱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공들였어요. 특히 페넬라 전시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서면 혁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의 가치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껏 제품으로 완성된 드레스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대담한 요소를 보는 거죠. 저희는 매년 이러한 요소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즉, 런던과 서울을 거치면서 우리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학습의 과정인 셈이죠. 이렇게 또 다른 것에서 전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차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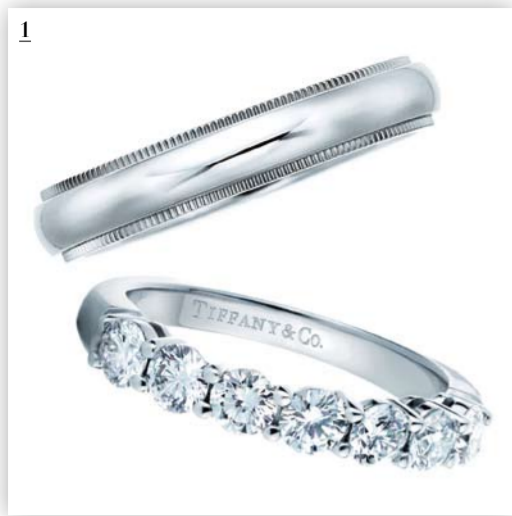
Q 이번 전시에서도 그렇고 샤넬은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부터 신시오티 리더와 직업을 지주 한다.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 모델을 선정하는지 궁금하다.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샤넬 브랜드를 좋아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샤넬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샤넬 고유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좋죠. 샤넬 고유의 가치와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내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웃음) 그러니까 샤넬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줄 알고 샤넬에 매료되어 있으며 샤넬을 존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요즘은 특히 전 세대를 아울러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중 샤넬 브랜드에 대해 자기만의 시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해요.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누구나 샤넬 브랜드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마자 그에 대한 코멘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제는 누구나 코멘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더불어 뷰티크에는 패션 어드바이저(FVA)와 고객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우리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방식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지털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맺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예요. 특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e-서비스'입니다. 'e-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e-서비스'는 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샤넬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Q 〈마드모아젤 프리베〉 전시 이외에 혹시 새로운 세대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세운 전략이 있나? 샤넬은 운이 좋아요. 메이 크립, 향수와 같은 카테고리 덕분에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새로운 세대가 샤넬을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계속해서 이러한 분야에 가치를 더해갈 필요가 있었어요. 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신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점은 기존 것들에 저항심이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면으로 비틀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껏 컬렉션을 쇼와 같은 무대를 통해 보여주는 일에 집중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팀도 신세대와 보다 친밀하려고 기존 것들을 비틀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찾으려고 고민 중이에요. 지금은 저 역시 샤넬이 이끄는 사람들이 계근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된 만큼 신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이 전시를 다른 도시에서도 선보일 계획이 있나? 물론이죠 전시는 우리의 신념이 담겨 있어요. 신념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도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무대 뒷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울림곡이 열리는 것처럼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싶어요. 이제 홍콩 전시를 끝으로 차례로 아홉 단계에 관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해요. 가장 먼저 쇼 무대의 뒷모습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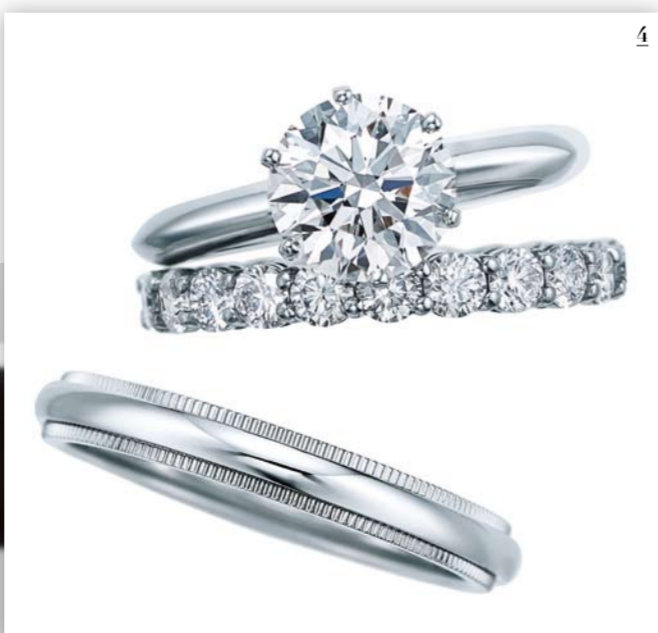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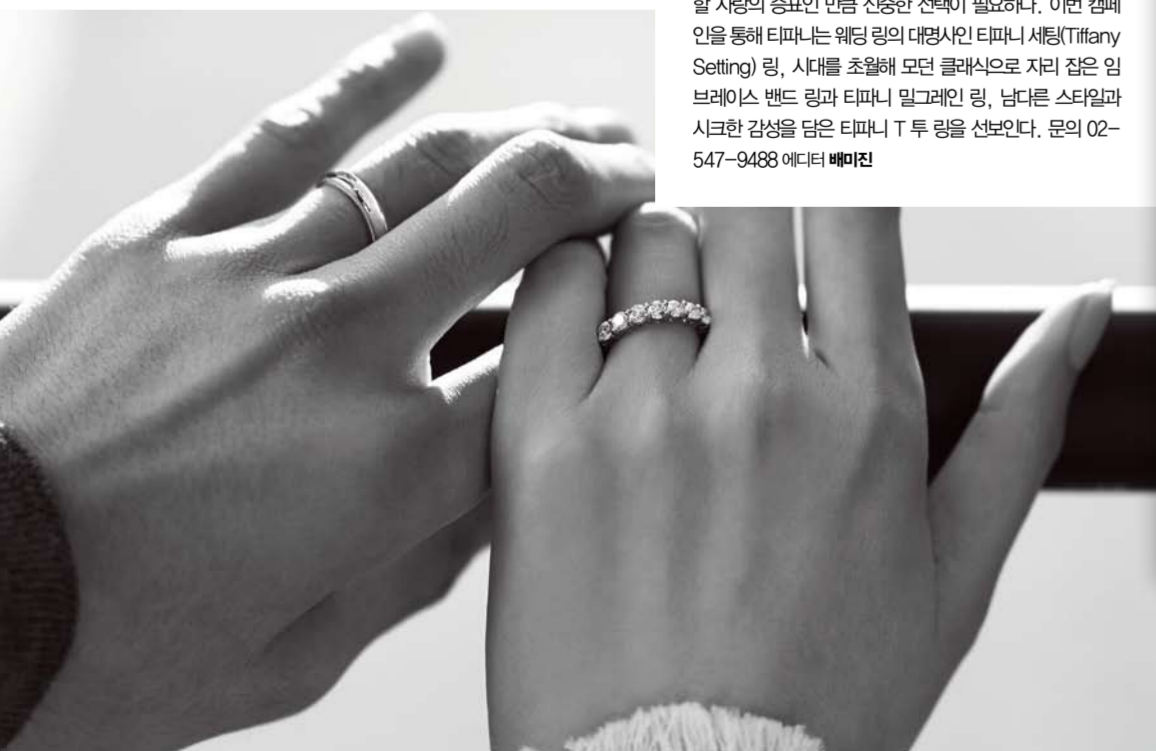


1 티파니 밀그레인 링 & 임브레이스 밴드 링, 2,3 남다른 스타일과 시크한 감성을 담은 티파니 T 투 링, 4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 링과 임브레이스 밴드 링, 티파니 밀그레인 링.

# Believe in love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사랑. 티파니가 사랑에 빠진 실제 커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 #Believe In Love를 선보인다.

티파니의 최고예술감독자 리드 크라코프(Reed Krakoff)는 "브랜드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커플들이 자신 소중한 사랑의 순간을 축복해온 티파니는 전통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안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캠페인은 오직 티파니만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과 그 진정한 의미를 조명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캠페인의 프린트, 디지털 광고 모두 각자 커플의 순동작과 이나설만 담았으며, 커플들의 실체는 디지털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영상을 통해 커플들은 자신들만의 러브 스토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광고에는 다양한 개성과 스토리를 지닌 일곱 커플이 등장한다. 파스스 디자인 스쿨 동창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결혼 3년 차 디자이너 커플 로라 바사와 크리스 브록, 수년 전 패션 행사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이 된 톰 모델 박지혜와 그녀의 남자 친구, 모로코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나 LA와 뉴욕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고 있는 패션 파워 블로거 아이 송과 포토그래퍼 자보코 모스친 커플, 뉴욕 패션 위크의 같은 무대에서 워킹을 하며 인연을 맺은 8개월 차 모델 커플 버버즈드와 페시 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 개성만큼이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커플들은 저마다 소중한 자기만의 러브 스토리를 지닌다. 이번 광고의 프린트 버전은 저명한 포토그래퍼 카스 버드(Cass Bird)가 참여했으며, 디지털 필름은 영화 <옥자>의 촬영감독으로도 유명한 다리우스 콘지(Darius Khondji)의 감독하에 탄생했다. 한편 이번 'Believe In Love' 캠페인을 더 빛나게 해주는 주인공은 바로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캐주얼 밴드 링이다. 원형의 반지는 예로부터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커플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해왔다. 사랑으로 맺어진 두 남자가 커플 링을 착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것. 커플만의 반지를 선택할 때 정해진 답은 없다. 디자인, 원석, 메탈 등 커플의 모습과 가장 닮은 그들만의 링이 존재하기 마련. 두 사람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 매일, 언제나 손에 착용하고 지켜야 할 사랑의 증표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티파니는 웨딩 링의 대명사인 티파니 세팅(Tiffany Setting) 링, 시대를 초월해 모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임브레이스 밴드 링과 티파니 밀그레인 링, 남다른 스타일과 시크한 감성을 담은 티파니 T 투 링을 선보인다.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 sponsored by TIFFANY & CO.

**Dew Drop & Constellation Fine Jewelry Collecti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 오메가 듀드롭 컬렉션 오메가의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의 심벌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작은 물방울 모티프가 매력적이다. 고급스러운 18K 골드 소재의 물방울이 은은하게 빛나며 여성의 품격을 더욱 아름답게 높여줄 것이다. 새하얀 웨딩드레스와도 잘 어울릴 듀드롭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듀드롭 다이아몬드 세팅 네크리스 4백만원대, 듀드롭 네크리스 2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밴드 링 컨스텔레이션 위치의 아이코닉한 심벌 클로 장식과 로마숫자 인그레이빙 모티프를 파인 주얼리로 재탄생시켰다. 심플하면서도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캐주얼 밴드 링으로 진정한 럭셔리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제격일 듯. 18K 레드 골드 링 3백만원대, 다이아몬드 세팅 링 4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 eternal Promise

사랑의 서약을 맺은 순간부터 함께 흘러갈 두 사람의 시간. 인생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예비부부를 위해 고른 오메가의 위치와 파인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est Couple Watches**  
(왼쪽부터)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테라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 액티브한 커플을 위한 패어 워치로 추천한다. 최고급 보트의 나무 맥을 연상시키는 다이얼 디자인이 특징이며, 오메가 마스터 코-엑스텀 칼리버 8500으로 구동된다. 41mm 남성용 워치 1천만원대, 영선한 화이트 자개 다이얼 워치 11개의 다이아몬드 세팅 인테스가 어우러지며 우아함의 정수를 선보인다. 34mm 여성용 워치 1천만원대 모두 오메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이자 예뻐 워치로 많은 사랑을 받는 컨스텔레이션 위치. 발동 모양의 클로 장식과 6시 방향에 수놓은 컨스텔레이션(별) 장식과 혼돈 로마숫자가 돋보이는 브라운 처리된 베젤이 상징적이다. 38mm 남성용 워치 1천만원대, 27mm 여성용 워치 5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이자연



● sponsored by OMEGA



**CHANEL**

20~30대 여성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샤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날을 앞두고 꼼꼼하게 피부 컨디션을 다져놓아야 한다면, 샤넬의 수블리마지 라인이나 장단 (우부타) 피부 재생과 회복에 탁월한, 그린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바닐라 플라니콜리아가 메인 성분인 강력한 회복 트리트먼트 수블리마지 렉스트리 15ml 63만8천원, 피부의 필수적인 성분 인자 합성에 작용하고 활동성을 증대해 강력한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수블리마지 라 크림 텍스처 파인 50g 49만원, 무한한 피부 생명력과 광채, 이중 디톡스 효능을 선사하는 수블리마지 렉스리 30ml 52만원대 모두 **사넬**. 문의 080-332-2700



**LANCÔME**

결혼을 앞두고 집중 케어를 하길 원하는 예비 신부에게 추천하는 랑콤 압슬루 라인. 농축된 정미 오일 성분이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에 생기를 더해줄 것이다. (우부타) 시계 방향으로 기존 압슬루 프레스스 셀 제품에 놀라운 재생력을 발휘하는 사과 줄기세포를 더해 세럼계 성분인 압슬루 프레스스 셀 50ml 37만원, 로션과 세럼 사이에 사용하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는 압슬루 디아스크 로즈 오일 30ml 25만원, 압슬루의 핵심 성분인 프록-실론이 눈가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당겨주는 압슬루 프레스스 셀 아이크림 20ml 21만원, 세 가지 정미 추출물을 담은 저자극 밀링 제품 압슬루 로즈 밀링 드롭 15ml 17만5천원 모두 **랑콤**. 문의 080-001-9500



이시키타 겐사

# bridal Beauty

여자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었던 꿈의 화장품을 담은, 시어머니와 예비 신부를 위한 예단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A PRAIRIE**

라프리의 스킨케어의 명성을 이어갈 귀중한 성분, 혁신적인 패키징부터 프라피리의 오가느까는, 여자의 로망 라프리의, 평소 접하기 힘든 캐비아에 이어 이번 지구상에서 가장 잔잔한 수수 플레티늄을 고스란히 이 한 병에 담았다. 1온스를 얻기 위해 10톤의 광석이 필요한 큐어 플레티늄은 피부의 잔자극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해줘 보습 및 보수 효과는 물론 연약스 흡수 능력을 증가시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어준다. (우부타) 플레티늄 레이 셀룰라 나이트 앰플시어 20ml 19만5천원대, 셀룰라 크림 플레티늄 레이 50ml 19만4천원대 모두 **라프리의**. 문의 080-511-6626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DECORTÉ**

시어머니께 드리는 뷰티 예단은 브랜드의 하이엔드 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데코르테, 프레스티지 라인, AQ 라인을 소개한다. (우부타) 임신한 원료로 피부에 풍부한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리스리 농축 세럼 40g 50만 원대, 더블 유 선택 트라이션 데이 & 나이트 세럼 30ml x 2 68만 원대, 생생한 탄력을 경험하게 해줄 AQ 리모리터 인티미 크림 45g 19만5천 원 모두 **데코르테**. 문의 080-568-3111



# miracle Light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는 다르다. 타사키는 동아시아 유일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 자격 사이트홀더를 갖추고 있으며, 기적의 빛을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 '다이만타르'가 원석을 컨트롤한다. 당신의 웨딩을 위해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가장 특별한 보석, 타사키 다이아몬드**  
세익스피어는 말했다. 보석이 인간의 말보다 더 강하게 여성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도 그럴 것이 시대를 초월해 사랑하는 여인에게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을 할 때, 그 결연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다양한 보석 중에서도 왜 다이아몬드가 유독 여성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아온 것일까? 그것은 세기를 넘어 무지갯빛 사랑을 발산하는 불꽃같은 다이아몬드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일지도 모른다.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절대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의 자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연인에게 프러포즈하기 위한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원석 평가 능력을 갖추었는지, 연마 기술이 뛰어난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타사키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이트홀더 자격을 갖춘 주얼리 브랜드다. 사이트홀더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할 만큼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2개 사만이 자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파워는 물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 기반, 마케팅 테크닉도 갖춰야 하지만, 무엇보다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타사키는 '기적의 빛을 선사하겠다'라는 사명감 아래 1994년 사이트홀더 자격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품질에 대한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다이아몬드 전문가 '다이만타르'가 엄선한 보석**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모두 컨트롤한다. 즉 완벽한 전문가가 일관된 관리와 점검을 함으로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최고의 원석만을 취급한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바로 단 한 명의 스페셜리스트는 30년 경력의 예비스타니 마사노부. 다이아몬드 산업이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이력을 쌓은 후 '다이만타르'로 인정받았다. 다이만타르란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그는 사이트홀더로서 타사키를 대표해 다이아몬드 원석 구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 거래에는 엄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몇십억엔의 거래라도 히브리어 마자르(신의 가호가 있기를)라는 언어와 다이만타르 간에 악수를 나누는 것만으로 판매가 성립한다.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가져다 준 혜택이란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이만타르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이아몬드의 고결함을 대하는 에티튜드나 보석을 사이에 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며, 심리학자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심리 테스트를 통한 필적 감성, 거짓말탐지기에 이르기까지 4-5년에 걸친 여러 가지 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다이만타르가 될 수 있다. 예비스타니 마사노부는 그동안 60만 개가 넘는 원석의 상품 가치를 결정해왔으며, 타사키의 본사 일본 고베를 떠나 5주에 한 번 런던 다이아몬드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한 번에 수십억엔의 원석을 거래하는 일 외에도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의 원산지과 뉴욕이나 애틀랜트 등 다이아몬드 거래소에도 수시로 다니며 시장 트렌드를 파악한다. 이처럼 보석을 향한 전문 지식과 기술, 고귀한 감성을 소유한 장인이 고르고 다듬었는지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엄격함과 신뢰가 바탕이 된 완벽하면서도 영원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를 기대한다면 타사키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이지연**



- 1 (우부타) 하프 말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세레 하프 에타니티 링,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 메인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디자인한 비로드 솔리테어 링, SAKURAGOLD™ 소재로 선보이는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 메인 원석과 함께 앙증맞은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수놓은 브릴리언트 솔리테어 링, 꽃잎을 형상화한 독특한 세이프의 리벨로 솔리테어 링. 2, 3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세레 솔리테어 링과 함께 '피아세레 하프 에타니티 링을 가득 원으로 제안한다.
- 4 5이웃엔 매장을 제외한 타사키 매장에서 1천만원 이상 구매시 웨딩 할증정 혹은 결혼식 당일 스타레파 타사키를 대여, 1천5백만원 이상 구매시 웨딩 할증정과 타사키 대여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sponsored by TASAKI



# Blue therapy

1백 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은 세 지역을 블루 존으로 선정, 그곳에서 채취한 활성 성분을 꼭 채워 담은 샤넬의 '블루 쉐림'.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블루 쉐림 아이'와 함께 기초 케어에 강력한 시너지를 더해주는 프리 세럼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새로운 습관이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새로운 뷰티 습관, 블루 쉐림

수시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만큼 심각한 미세먼지, 건조한 실내 환경으로 다른 계절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스킨케어를 하는 데도 피부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프리 세럼(pre serum)을 활용해보자. 프리 세럼은 피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 보습력은 기본이고 다른 제품의 흡수력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스마트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프리 세럼이 부스팅 역할에만 머물렀다면 샤넬의 '블루 쉐림'은 총체적인 스킨케어 과정에 관여한다. 단순히 노화에 대항하는 수단이라는 보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피부 건강 지수와 젊음 지수를 개선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것이 샤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화장품은 피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원래의 힘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샤넬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한 여성들은 지난해 출시된 블루 쉐림에 큰 지지를 보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새로운 뷰티 습관으로 블루 쉐림을 선택했고, 샤넬의 대표 스킨케어 아이템으로 당당하게 안착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올해에는 눈가 부기와 다크서클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블루 쉐림 아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녹아내리는 듯 촉촉한 텍스처는 빠르게 흡수되어 눈가 피부를 부드럽고 쫄깃하게 만들어주고,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즉각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다. 블루 쉐림 아이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눈가 전용 케어 제품을 바르기 전에 사용해 더블 케어를 해도 효과가 뛰어나다.

## 블루 존의 풍부한 생명력을 담다

샤넬의 블루 쉐림, '블루 쉐림 아이'는 블루 존(blue zone)이라 불리는 특별한 지역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그 지역은 바로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그리스. 타 지역에 비해 1백 세 이상의 장수 인구가 월등하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샤넬은 영양 성분이 풍부한 이 지역 고유의 식물들에 주목했는데, 특히 그중 세 가지 성분에 집중했다. 피부 회복과 변화, 최적화로 이어지는 과정 모두에 관여해야만 피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고른 재료는 코스타리카의 그린 커피, 이탈리아의 올리브, 그리고 그리스의 렌티스크다.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커피, 피부 보호 효과가 있는 올리브, 강력한 재생 효과를 지닌 렌티스크의 성분이 피부 세포 간의 대사를 활성화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 자연 유래 성분의 효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엄선했고, 특별한 맞춤형 추출 과정을 거쳐 이전에 없던 순수하고 강력한 활성 성분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우선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해발 700m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그린 커피 열매를 햇볕에 건조되기 전에 손으로 직접 수확해 콜드 프레스 공법으로 처리해 비정제 오일을 얻었다. 항산화 효과가 5배 더 농축된 추출 방식이었다. 올리브의 필수지방산과 오메가 3·6·9, 그리고 폴리페놀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하나의 추출물에 담기 위해 샤넬은 열매와 잎의 효능을 결합하는 추출법을 접목했고, 렌티스크에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추출 과정을 적용해 추출물의 성분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런 첨단 추출 기법을 활용해 블루 존에서 채취한 강력한 활성 성분 세 가지 덕에 블루 쉐림, 블루 쉐림 아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더해주는 프리 세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어떠한 스킨케어 제품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의 데일리 뷰티 리추얼을 바꾸어줄 새로운 제품인 것. 수분 라인의 기초 제품 전에 사용하면 강력한 수분 공급과 플럼핑 효과가 블루 쉐림의 주름, 탄력, 피부 톤 개선 작용에 시너지 효과를 선사한다. 안티에이징 라인이나 화이트닝 라인 기초 이전 단계에도 블루 쉐림을 발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스킨케어 첫 단계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성 세럼 사용 이전에 샤넬의 블루 쉐림, 블루 쉐림 아이를 발라보자. 펄 발라도 푸석해 보이는 겨울철 피부에 수분 쉐어링이 속 흡수되어 피부 기초 체력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줄 것이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CHANEL

# One Drop at night

"때로는 밤이 낮보다 더 살아 있다고 느껴진다." 빈센트 반 고흐  
라프레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피부에 세심하게 작용하는 신중한 스킨케어 신제품 라프레리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나이트 엘릭시어는 밤을 위한 특별하고 유니크한 집중 케어 제품이다. 단 한 방울만으로 피부가 달라진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라프레리의 오랜 고민과 노하우가 지금 당신의 밤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라프레리와 매일 새로운 아침

가벼운 플로럴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산뜻하고 품위 있는 향기다. 여기에 탄력 있는 제형이 한 방울 피부에 맺힌다. 다른 뷰티 제품에서 느껴볼 수 없는,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풍부한 제형이다. 이렇듯 남다른 애틀리티드를 지닌 럭셔리한 보라색 패키지에 담긴 라프레리의 신제품,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나이트 엘릭시어의 가격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가격대의 크림이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에서 계속 출시된다는 것은 이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증거다. 특히 라프레리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 뷰티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치 이름을 널리 알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처럼 뷰티업계에서 라프레리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특별하다. 밤사이 피부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이 제품은 엘릭시어(Elixir)라는 이름에서 그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만병통치 혹은 불로장생을 위한 명약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라프레리 최측근 피부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네 가지 기능인 영양과 호흡, 디톡스 및 면역작용을 더욱 활성화 시켜주는 포몰라를 단 하나의 제형에 담았다. 최신 피부 재생 트렌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독소 배출 과정을 강화하고 세포 호흡을 개선하기에 피부는 영양소를 더 확실하게 공급받게 될 뿐 아니라 방어 능력까지 향상되어 피부 활력이 증진된다. 이러한 중요한 세포 재생 기능을 돕기 위해 추천하는 제품이 라프레리의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나이트 엘릭시어다. 그 어느 때보다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는 밤에 작용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효능을 갖추었다.

## 깊은 밤 작용하는 익스클루시브 쉐루라 콤플렉스

라프레리는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더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익스클루시브 쉐루라 콤플렉스를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나이트 엘릭시어에 담아냈다. 저녁에 클렌징과 토닝을 한 후 손바닥에 단 한 방울을 떨어뜨려 손끝을 사용해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엘릭시어를 부드럽게 펴 바르고 완전히 흡수되도록 한다. 바르는 순간, 엘릭시어의 텍스처가 마치 캐시미어처럼 부드럽게 피부를 보호하는 듯한 감촉을 선사한다. 또 엘릭시어의 컬러는 반짝이는 플래티늄에서 무지갯빛이 감도는 장밋빛으로 바뀌는 매혹적인 변화를 선보이는데, 여기에 섬세한 플로럴 향이 더해져 피부 회복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 아이 에센스와 리프팅 제품을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지닌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크림으로 스킨케어



를 마무리한다. 이 특별한 스킨케어 루틴은 피부 탄력과 피뭉결 개선에 눈에 띄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때 엘릭시어에 담긴 익스클루시브 쉐루라 콤플렉스가 극적인 효과를 지어내는데, 세포 구조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DNA를 비롯한 생체 분자의 합성을 위해 피부 세포에 필요한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같은 구성 요소를 함유해 필수영양소를 공급한다. 밤사이 재생하는 피부에 가장 고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라프레리 플래티늄 레이 쉐루라 나이트 엘릭시어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귀한 이야기를 피부에 들려줄 것이다. 게다가 라프레리는 스위스 클리닉 라프레리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라프레리 스파, 매종 라프레리

를 청담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1백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The Art of Beauty'라 불리는 라프레리의 특별한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구매 금액이 높을수록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진다. 매종 라프레리에서 제공하는 스킨트리트먼트는 전 세계 20여 개국, 60여 개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상급 라인인 플래티늄 컬렉션으로 이루어진 폴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다. 오직 라프레리 제품만으로 프로그램밍된, 최고의 피부 관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이유다. 20ml 1백52만3천원, 문의 080-511-6626 **에디터 배이진**

● sponsored by La Prairie



**폴드엔타이**

신세계 SSG에서 받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프 쿠티르 패키지를 위한 상담부터 특별 제작까지, 예단을 보다 기품 있고 격식 있게 완성해주는 선물 패키지를 전문 브랜드 폴드엔타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달에는 꽃 같은 필을 보려는 부모의 마음과 가족이 될 집안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포장 가격은 1만5천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문의 fold-tie@naver.com



**젠 클래식**

창립동에서 가장 오래된 예단 집으로, 수많은 예비 신부가 찾은 곳이기도 하다. 창구부터 그릇 등 다양한 예단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진주와 일주에서 제작하는 전통 새 한자 및 디자인으로 포장하고, 예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의미하는, 한자로 고아 만든 지끈을 포인트로 장식한, 은은하면서도 전통스러움을 표현한 예단 포장이 돋보인다. 물건을 구입하면 예단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543-6636



*precious Present*

예단은 예비 시부모님께 가족이 된다는 걸 알리는 정중한 첫인사인 만큼 정성스레 포장해 예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 예단 전문 패키지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더들리 공방**

전통의 맛이 느껴지는 한자와 말린 꽃 장식을 더해 정성스레 포장한 유기 반상과 참구 세트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품목이 더욱 다양해진 예단 트렌드에 맞춰, 예단 편지와 함께 예단 세트 등 다양한 구성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공방에 직접 방문해 입학 또는 민화 편지로 예단 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많은 예비 신부가 찾는다. 가격 미정. 문의 070-7516-5207



**호호당**

듣기만 해도 유쾌한 호호당은 당신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라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는 웃음소리를 표현한 상주명이다. 이미 많은 명품 브랜드와 예단 패키지를 보자기 디자인을 협업해온 보자기 포장 전문 브랜드로, 7월 날 함께해줄 기쁨 있는 선물과 단아하며 현대적인 감각의 포장을 만나볼 수 있다. 보자기 구매 시 별도의 비용 없이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704-0430 예단터 이지연



이시연



● sponsored by SWAROVSKI

**Stella Watch Collection**  
스와로브스키 특유의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의 스텔라 워치. 반짝이는 크리스탈 파베 장식의 타원형 케이스가 궁극의 우아함을 선사한다. 스와로브스키 워치 최초로 선보이는 라그 디자인과 감각적인 색상의 가죽 스트랩이 어우러진다. 태깅 룩부터 이브닝 룩까지 활용도가 높은 것도 장점. 스텔라 그레이 컬러 워치 51만원, 화이트 컬러 워치 46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Shine your day*

반짝임의 대명사 스와로브스키가 브랜드 뮤즈 박신혜를 내세운 새로운 워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당신의 일상에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할 스텔라 워치와 코스믹 락 컬렉션이 바로 그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osmic Rock Collection**  
화려하고 볼드한 뱅글 디자인의 워치로 스텔라 코스믹 케이스에 상쾌하게 수놓은 크리스탈이 우아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길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브레이슬릿과 워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코스믹 락 화이트 케이스 51만원, 로즈 골드 케이스 5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예단터 이지연



#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티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웨딩 데이를 위한 스페셜 뷰티 케어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타 마리아 노블라 멜로그로노 인태리코타 프루피토** 향기로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홈 프레시 제품으로,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기 좋다. 따뜻한 피우다리한 멜로그로노 향 테리코타 발향제로, 식욕을 돋이켜 한 용기 멜로그로노 향을 담아 오렌지향 수경으로 수송시켜 완성했다. 원하는 공간에 두면 밤 안 가득 은은한향이 퍼질 뿐 아니라 라빙 오색제를 출품해해낼 것. 10만8천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이지현*

**나스 리퀴드 블러쉬 워터 루프** 요즘 가장 핫하다는 브릭 레드 컬러로, 나스에서 출시되었는데 소스에 무척이나 사용되고 싶었던 제법 몇 번 틱톡 두드러기만 해도 선명한 발색과 밀착력을 자랑하는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로, 피부 탄에 상관없이 칙칙함이 두루 잘 어울린다. 15ml 4만4천원. 문의 02-6906-3747. *by 에디터 이지현*

**데코르테 AQMW 아이 글로우 젤** 신비롭게 반짝이면서 깊고 짙은 눈매를 연출해 줄 브라운 컬러의 아이 샴푸. 연두 피우다리한 브라운 컬러로 보자면, 크림과 젤, 가루 타입의 장점만 모두 모아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발색되면서 가루 냄새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 새로운 질감의 제품이다. 투명한 핑크 빛색되어 여려 번 덧발라도 자연스러운 그래픽에선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고, 덧발수록 입체감이 살아난다. 6g 3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인슬루 루즈 수자토티(#360)** 일명 '수지 립스틱'이라 불리며 SNS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립스틱. 분유가 있는 장미 꽃잎 컬러로 매트한 텍스처에도 비록는 순간 입술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뛰어난 발색력을 자랑한다. 랑콤의 주요 성분인 프락실린을 함유해 입술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촉촉하고 매끄러운 립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다. 3.4g 4만2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지현*

**오일 퍼플 오일 스테이플** 올은 단 1천 개 한정으로 생산한 오일의 휴대용 물은 향수.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천연 아로마로 인드 향수가 에 더욱 매력적. 손이 딱딱해지거나 정도의 작고 있는 시아즈와 휴대하기 간편하다. 핑스 향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이들에게 추천한다. 10ml 3만9천원. 문의 02-517-5515. *by 에디터 배지민*

**시슬리 워터 로즈 스타 워터프루피토 아이리너** 신부 메이크업의 생명을 반하지 않는 걸 끝낸 아이 메이크업이다. 반짝이는 은은한 핑크 메이크업을 위한 아이리너는 빛 반사 효과로 눈가를 강조하고, 한 번의 터치만으로 눈매를 작게 만드는 것은 물론, 피자와 핑에 강해 하루 종일 번짐 없이 깨끗한 아이리너를 유지시킨다. 0.3g 5만15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권유진*

**클리안스 핸드 & 네일 트리트먼트 크림 그라피프루피토 리프** 손뿐 아니라 손톱까지 치한 반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손을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손톱의 잔열을 개선하고 네일과 큐티클까지 깨끗하게 가꾸준다. 자몽 향에 향 무와 베타틴을 함유한 더 해 버리는 동시에 상큼하게 반하는 시트러스 향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 30ml 1만3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지현*

**다미크 캔들 로즈 달마이트** 로맨틱한 무드에 한층 추가 빠질 수 없다. 여성스러운 정미향과 달콤한 꿀, 그리고 가벼운 레몬 향까지. 초를 켜지 않아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향을 발산하는 이 향차는 밸런스 있는 향차로 신비로운, 그릴로 연을 발산하는 제품이다. 실재로 18세기 젊은 연인들이 직은 손수건에 곁에 싸서 서로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고받던 로맨틱한 캔들. 후쿠에서 후각적 영감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 의미까지 로맨틱하다. 190g 8만9천원. 문의 02-6002-3230. *by 에디터 권유진*

**프루피토 블랙티 콤부차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미세 입자에 의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할 때, 이 에센스를 처음 접했다. 깨끗이 세안한 후 화장용 여려 개에 에센스를 충분히 적시어 바르고, 양쪽에 몇 분간 올려두면 후 부드럽게 두어내고, 또 한 번 적당량을 손바닥에 얹어 얼굴에 부드럽게 두드리 흡수시켰다. 이 단계를 3일 동안 반복했었는데, 피부결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진 것은 물론 탄력과 모공 케어에 도움을 받았다. 150ml 9만7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이지현*

**아베다 스트레시픽스 콤부차 솔트** 다양한 베스 솔트를 사용해왔지만 언제나 질리지 않는 편안한 향기와 쾌적함을 선사하는 것은 아베다 제품이다. 유기농 살림이 피부 각질 제거를 돕고, 해리온기 씨 오일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454g 5만15천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배지민*

**샤넬 부드르 아레브로 410** 매우 새롭고 재밌는 립 팔레트가 등장했다. 투명한 오이스터 화이트 핑을 먼저 바른 후 오렌지색의 틴트 포리스트 피우다 피드먼트를 틱톡 두드리면 아주 쉽게 꽃잎이 물든 은 은은하게 변신 그래픽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제품을 탄생시킨 샤넬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가 핑금 키스한 듯한 입술이라고 표현했으니 하나도 메이크업의 필수품에 틀림없다. 3g 4만6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다들 아이트 립 글로우 워터 아이리너링 랩핑 홀로 핑크** 스페셜라이저 베이스 컬러 랩핑이 가진 미지 립스틱처럼 피부에 자연스러운 핑크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된 제품이기도 하다. 투명한 핑크와 반짝이는 홀로그래피 이라디언스 핑이 담겨 있는 홀로 핑크 컬러는 기존 자연한 랩핑에 특별한 타격을 더하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3.5g 4만1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배지민*

**라프레리 플래티늄 레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 출시가 메이크업이 가진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하이엔드 세럼. 가벼운 플루얼 향과 끈끈한 제형이 특징이다. 꼭 한번 사용하고 싶은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초고급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품격 있는 특별한 제품을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20ml 1만452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지민*



# SHOWROOM



FASHION

**샤넬 블루 세럼 아이** 샤넬은 눈가를 흰하게 빛내 줄 '블루 세럼 아이'를 출시했다. 블루 존이라 불리는 특별한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이 세럼은 눈가 부기와 다크서클 완화와 효과적인 보습·보호 성분을 담았으며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로 눈가에 탄력을 선사한다. 문의 080-332-2700

**데코르테 포인트 메이크업 컬렉션** 데코르테는 얼골의 빛과 음영을 조화롭게 완성해 피부를 매혹적으로 돋보이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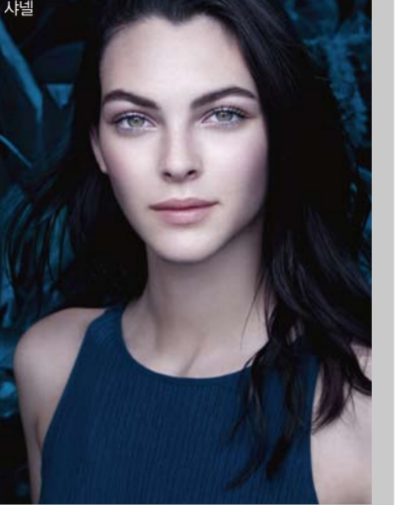
**라프레리 플래티늄 레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 라프레리는 궁극의 나이트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플래티늄 레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를 출시했다. 시너저 핵심 성분인 셸루라 콤플렉스와 고 농도의 어드밴스드 플라티늄 콤플렉스는 피부의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명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자잘한 내부 파우더는 밤하늘의 미묘한 분유와 보석의 진귀함을 떠올리게 한다. 문의 080-511-6626



BEAUTY

**폴트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딥 인 글로'라는 콘셉트로 아이 컬러, 립스틱, 아이리너 등 총 51종의 아이템이 얼굴에 우아한 입체감을 불어넣어 준다. 문의 080-568-3111

**리프레리 플래티늄 레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 라프레리는 궁극의 나이트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는 가장 강력한 '플래티늄 레어 셸루라 나이트 엘릭시어'를 출시했다. 시너저 핵심 성분인 셸루라 콤플렉스와 고 농도의 어드밴스드 플라티늄 콤플렉스는 피부의 재생 과정에 필수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명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자잘한 내부 파우더는 밤하늘의 미묘한 분유와 보석의 진귀함을 떠올리게 한다. 문의 080-511-6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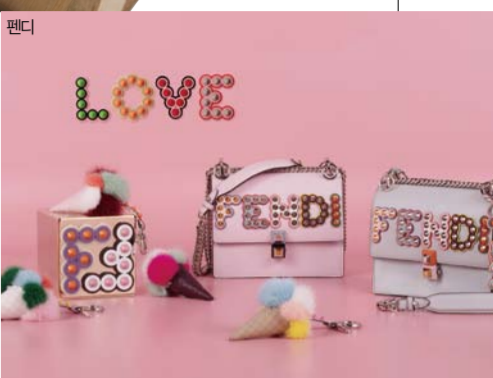


**브루넬로 쿠차넬리 코튼 사파리 재킷** 브루넬로 쿠차넬리는 부드럽고 강렬하며 에이지 넘치는 디자인의 색감에서 영감을 받은 2018 S/S 남성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의 키 아이템 '코튼 사파리 재킷'은 경량의 면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생활방수 기능을 적용해 가벼운 눈, 비에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뽐낼 수 있다. 문의 02-3448-2931

**버버리 지언트 캔버스 체크 가죽 리버시블 토트** 버버리는 내은 색상이 돋보이는 새로운 지언트 캔버스 체크 가죽 리버시블 토트를 선보인다. 내은 옐로, 핫핑크 등 비드한 색상의 라인 테이프 미묘함과 블랙 컬러 사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뒀으며, 부드러운 가죽과 체크 캔버스 소재로 디자인해 양면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파비아나 필라피 2018 S/S 데님 라인 컬렉션** 파비아나 필라피는 최고급 소재와 편안한 디자인으로 기쁨 있는 스타일의 '2018 S/S 데님 라인'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의 대표 아이템인 데님 재킷은 스트레처성이 좋은 데님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브랜드만의 고유한 워싱 기법으로 은은한 멜런시 그레이 컬러를 구현해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무드를 연출해준다. 문의 02-6960-0831

**핀디 기프트 컬렉션** 핀디는 실 명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특별한 기프트 컬렉션을 공개했다. 핀디 레터링과 스타드 장식이 돋보이는 스몰 캔디 백부터 신선했던 컬러와 귀여운 디자인을 더한 참 장식까지, 연을 위한 색다른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 핀디의 기프트 컬렉션에 주목해볼 것. 문의 02-2056-9023



**골든듀 해피블롬 & 해피하트 네크리스** 골든듀는 행복함이 활짝 피어나는 실내는 순간을 꽃송이처럼 소담스럽게 표현한 '해피블롬 & 해피하트 네크리스'를 선보였다. 볼륨감 있는 입체적인 금속의 곡선과 인이 귀엽고 앙증맞은 실루엣을 선사한다. 18K 골드 골드에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중앙의 하트 모티프가 포인트를 주어 사랑스러움을 전한다. 문의 1588-6576

**타사키 발런스 노트** 타사키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심세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발런스 노트'를 선보인다. 비를 따라 미지 음차처럼 지리한 다양한 크기의 진주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자유롭게 우아한 무드를 연출해준다. 문의 02-3461-5558

**타파니 카를 밴드 링** 타파니는 카를을 위한 '타파니 임브레이스 밴드 링'과 '타파니 밀그레인 링'을 제안한다. 임브레이스 밴드 링은 플라티늄 밴드를 따라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해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밀그레인 링은 가장자리에 밀그레인 기법으로 풍요를 의미하는 곡선 문양을 새겨 넣어 평생을 함께할 카를을 위한 반지로 더욱 뜻깊은 상징성을 지닌다. 문의 02-547-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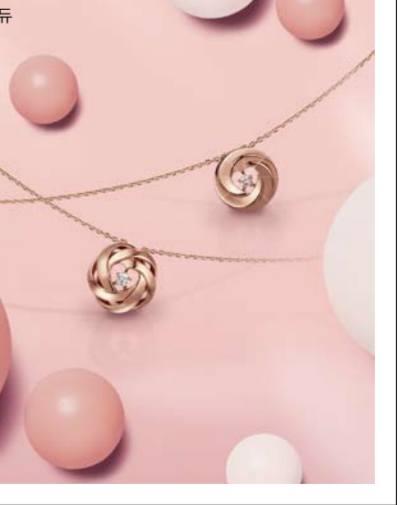
**블거리 디바스 드림 주얼리 워치** 블거리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에 보다 할리웃적인 디자인과 소재를 활용도를 높인 알레기아 스텝 버전을 디바스 드림 주얼리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젠스톤을 집적한 것이 특징이며, 선명한 컬러와 경쾌한 무드를 더한 27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340

**스외로브스키 코스믹 룩 워치 컬렉션** 스외로브스키는 울트라 파인 크리스털로 디자인한 '코스믹 룩 워치' 컬렉션을 출시한다. 백골 디

자은 위치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심세하게 세팅한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모던하며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데일리 룩에 잘 어울린다. 문의 02-3438-6108

**반클리프 아펠 럭키애니멀 클립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생기 있고 우아한 재래로 부드러운 매력을 뽐내는 '럭키애니멀 클립' 컬렉션을 선보인다. 메종의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를 담아 선보인 이번 컬렉션은 9미리 동물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특히 도그 클립은 개티 해인 무술년을 기념하는 선물로 제작이다. 문의 02-6905-344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mm** 오메가는 크로노그래프의 디자인과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간결한 스타일과 크기, 컬러 등 새로운 심미적 요소를 집적한 '스피드마스터 38mm'를 공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함께 블랙 알루미늄 링으로 장식한 타카미터 스캘피 바젤이 특징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하마 메달리언을 인그레이빙한 케이스 백 버전으로 출시된다. 문의 02-511-5797



JEWEL&WATCH



**만싱웨어 그랜드슬램 스웨터** 만싱웨어는 라운드의 일상에서 모두 입을 수 있는 '그랜드슬램 스웨터'를 출시했다. 1955년에 출시한 그랜드슬램 컬렉션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선보인 이번 컬렉션은 벨라 깃발 패션을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했으며, 프리미엄 코튼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문의 02-545-8226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시몬스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프로모션을 3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시몬스 전국 공식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케노스 컬렉션의 호텔 스타일 베딩을 증정한다. 예비부부라면 침실을 돌이킬 휴식과 숙면의 공간으로 만들어줄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을 놓아들 것. 문의 1899-8182

LIFESTYLE





# BVLGARI

ROMA

DIVAS' DREAM

BVLGARI.COM #BULGARIMAGNIFICENTTALES